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신 은 주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하여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백 순 근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전공
신 은 주

신은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위 원 장 _____ 박 현 정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길 혜 지 _____ (인)

위 원 _____ 백 순 근 _____ (인)

국 문 초 록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통해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그치거나, 교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등 전반적으로 학생의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학생의 관점에서 진로탐색활동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여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진로성숙도' 간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통해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 연구 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는 '가치', '호

감', '기대', '준비'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는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진로성숙도 척도'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태도', '의사결정', '지식', '행동'의 4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세 가지의 척도 모두 구인타당도와 신뢰도(Cronbach's α)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은 G시의 G중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228명 중 설문에 성실히 응답한 178명이었으며, 검사 실시의 시기는 진로탐색활동 태도 검사와 진로성숙도(사전) 검사를 2017년 9월 초순으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검사와 진로성숙도(사후) 검사를 2017년 10월 하순으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에 측정한 진로성숙도의 사전검사 평균은 32.56, 사후검사 평균은 33.61이었으며, 평균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 결과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넷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에 더 많

은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의 성과나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과 다른 교육활동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진로성숙도, 자유학기제

< 목 차 >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Ⅱ. 이론적 배경 ····· 4
1.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 4
2. 진로탐색활동 태도 ····· 18
3.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 20
4. 진로성숙도 ····· 22
5. 변인 간의 관계 ····· 25

Ⅲ. 연구가설 ····· 29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 29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 31

Ⅳ. 연구방법 ····· 33
1. 연구 대상 ····· 33
2. 측정 도구 ····· 34
3. 연구 절차 ····· 56
4. 자료 분석 방법 ····· 57

Ⅴ. 연구결과 ····· 59
1. 기초통계 ····· 60
2. 진로성숙도의 진로탐색활동 전 후 점수 변화 ····· 64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 64

Ⅵ. 요약 및 논의 ····· 68
1. 요약 ····· 68
2. 논의 ····· 70

참고 문헌 ····· 74

부록(설문지) ····· 83

ABSTRACT ····· 93

< 표 차 례 >

<표 Ⅱ-1>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 5
<표 Ⅱ-2> 진로교육법 제정 후에 달라진 점 ····· 5
<표 Ⅱ-3>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 10
<표 Ⅱ-4>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및 내용 ····· 11
<표 Ⅱ-5> 학생의 태도 측정 변인 ····· 19
<표 Ⅱ-6>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개발 ····· 19
<표 Ⅱ-7> 학생의 만족도 측정 변인 ····· 21
<표 Ⅱ-8>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개발 ····· 21
<표 Ⅱ-9>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을 다룬 선행연구 ····· 26
<표 Ⅳ-1> 연구대상 ····· 33
<표 Ⅳ-2>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영역 ····· 35
<표 Ⅳ-3>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신뢰도 ····· 36
<표 Ⅳ-4>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38
<표 Ⅳ-5>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적합도 ····· 39
<표 Ⅳ-6>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모형의 계수 추정치 ····· 41
<표 Ⅳ-7>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 ····· 41
<표 Ⅳ-8>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 43
<표 Ⅳ-9>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44
<표 Ⅳ-10>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적합도 ····· 46
<표 Ⅳ-11>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모형의 계수 추정치 ····· 47
<표 Ⅳ-12>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영역 ····· 49
<표 Ⅳ-13> 진로성숙도 척도의 신뢰도 ····· 50
<표 Ⅳ-14>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 51
<표 Ⅳ-15> 진로성숙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 52

<표 Ⅳ-16> 진로성숙도 척도의 적합도 ····· 53
<표 Ⅳ-17> 진로성숙도 척도 모형의 계수 추정치 ····· 54
<표 Ⅴ-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 ····· 60
<표 Ⅴ-2>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상관관계 · 61
<표 Ⅴ-3>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 62
<표 Ⅴ-4>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 62
<표 Ⅴ-5>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 63
<표 Ⅴ-6> 진로성숙도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 차이 ····· 64
<표 Ⅴ-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 65
<표 Ⅴ-8>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추정치 ····· 66

< 그 림 차 례 >

[그림 Ⅲ-1] 연구모형 ····· 32
[그림 Ⅳ-1]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 39
[그림 Ⅳ-2]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 46
[그림 Ⅳ-3] 진로성숙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 53
[그림 Ⅳ-4] 연구절차 ····· 56
[그림 Ⅴ-1] 구조방정식 모형 ····· 65
[그림 Ⅴ-2] 최종모형 ····· 67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의 빠른 진보로 인한 사회·경제적 맥락의 변화는 빠른 직업 수요의 변화를 야기하고, 매 순간을 직업세계의 과도기로 느끼게 하여 혼란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좋은 학위와 직업 환경의 기준' 그리고 학생이 새롭게 형성한 '나만의 직업 가치관'의 충돌이 빈번한 오늘날처럼 진로교육이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많은 시기에,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교육으로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현황을 경험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우리나라 교육부는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중학교 저학년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지정하여 기존 교과목들의 시수를 줄이고, 시험 및 교과서가 없는 진로탐색기간을 경험하도록 하여 토론, 실습 등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진로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교육부, 2015). 2013년에 42개 연구학교 운영으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2016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실시하여 초·중·고등학교 진로교육과정이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연계되도록 하였으며,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으로 진로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및 지역사회의 협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모든 교원이 진로교육에 참여하게 하며 지속적인 진로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배경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모든 교육수혜자들이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에서는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자유학기제에 실시된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관리를 하며 자유학기제의 성과를 측정하고 있지만, 자유학기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여론을 통해 파악할 뿐,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는 명

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김영우, 김종두(2016)의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의 문제점에서 학습태도불량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들의 자유학기제의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은 아직 긍정측면과 부정측면이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진로교육에의 중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인 관련 법제의 도입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과정을 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수혜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교육은 그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기 마련이다. 만족이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백순근, 박경인, 2010; Campbell, 1976; Elliot & Shin, 2002)이며, 최근 참여자의 '만족도'를 통해 진로교육의 성과를 밝혀내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윤지윤, 20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함승연, 2012; 이정민, 2011; 최인재 외, 2009). 다만, 지금까지 교육의 수혜자를 고려하지 못하는 공급자 중심의 만족도 측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혜자의 교육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을 뿐 아니라, 오직 자유학기제의 교육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진로탐색활동 교육의 효과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진로교육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에 '진로성숙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는 임언 외(2012)가 개정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척도'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성과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여러 연구 논문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진로교육의 효과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김봉환, 허은영, 2006; 이경미 외, 2006; 강원덕, 안귀여루, 2010; 오석영, 2012; 한수정, 2013; 이숙희, 정영란, 2014; 윤지윤,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15년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교육의 수혜 대상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첫째,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를 개발하고, 둘째,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임언 외, 2012)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한 척도의 요인을 분석하여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다. 이어, 셋째,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을 통해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에 진로성숙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며, 넷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만족도,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이 세가지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영향관계를 보였던 변인들의 관계가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맥락에서 어떠한 상관관계와 유의관계를 가지는지를 밝히며, 다섯째, 이들 변인이 구조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 그리고 이로 인한 성과 변인인 '진로성숙도'의 교육적 함의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아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구 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에 진로성숙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5.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매개역할을 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우리나라 교육부는 중학교 저학년의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흥미를 키우며 학습에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2013년에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는 이를 모든 중학교에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진로교육의 과정에서 중학교 기간을 진로탐색 기간으로 설정하여 초등학교 진로인식 기간과 고등학교의 진로설계 기간을 연계하는 중학교 진로탐색 기간 및 자유학기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수준 진로교육과정을 <표 Ⅱ-1>와 같이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교육과정은 '학생 참여형 수업이 주가 되는 교과' 및 '진로탐색활동, 주제선택활동, 예술·체험활동, 동아리활동이 주가 되는 자유학기활동'으로 구성하고 성장 및 발달에 중점을 둔 과정중심평가를 지향하였다(교육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2016).

우리나라의 진로교육법은 <표 Ⅱ-2>와 같이 '지속적인 진로관리', '다양한 활동과 경험', '학교 밖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 '모든 교직원의 진로교육 참여'와 같은 변화로 진로교육을 보완하였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로, 김나라, 최지원(2014)은 아일랜드 전환학년제, 덴마크 애프터스쿨, 스웨덴 프라오, 영국 갭이어를 선정하여 이들의 개념, 도입 배경, 주요특징, 교육적 효과를 문헌연구, 방문인터뷰, 서면인터뷰를 통해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진로교육의 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운영방향과 과제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차원에서 다양한 체험 유형의 구성의 필요성, 지원 및 운영체제 지원의 차원에서 진로전담 교사 이외에 일반교사의 역할의 필요성, 지역 공동체 및 산업체의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표 Ⅱ-1>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초등학교 (진로인식)	중학교 (진로탐색)	고등학교 (진로설계)	대학교 (진로선택)
•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 - 실과,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	• '진로탐색'중심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일반고) • 진로·진학 교육 • 대학·학과 관련 진로체험 실시	• 진로교육을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권장 • 학생중심 원스톱 서비스
자유학기제 예비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 발전	취·창업과 연계
• 현장 견학형, 강연·대화형 등 진로체험	• 양질의 진로체험프로그램 • 도·농간 진로체험 격차 해소	(특성화고) • 진로·직업 교육 • 인턴십(현장실습운영) • 선취업·후진학 지원	• 인턴십(현장실습) 강화 •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 교육부(2016c:4)를 인용

<표 Ⅱ-2> 진로교육법 제정 후에 달라진 점

진로교육법 제정 전	진로교육법 제정 후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정보 제공 위주	진로역량발전 교육 및 졸업 후 진로관리
진로 지식과 개념 전달 위주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통한 자기주도진로학습
학교 내 활동에 국한된 진로교육	지역 사회가 협력하는 진로교육 (중앙정부, 지역정부, 도 기관, 기타 기관들)
선택적인 진로교육	의무적인 진로교육(학교 교과목에 기준 명시)
진로전담교사만이 진로교육을 담당	모든 교직원이 진로교육에 관여 (담임교사, 교과목 교사, 부모)

※ Ji-Yeon Lee(2017:10)를 인용

가. 진로교육의 정의 및 효과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란 '개인이 진로 방향을 세우고, 진로 선택을 준비하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서도 계속적으로 발달하여 궁극적으로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체의 경험'이고(Bailey, Stadt, 1973), 학생들이 삶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다(윤지윤, 2015 재인용; 김영희, 2004; Taylor, 1976).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다양화해가는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직업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생의 직업경력을 관리하는 '진로개발역량(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을 갖추는 일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송낙현 외, 2009).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는 진로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경험을 선택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로개발역량'은 개인이 인생 전반에 걸쳐 겪게 되는 일과 관련한 경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의 기본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자기 이해 및 긍정적 자아개념과 태도 형성, ② 직업세계의 이해 및 긍정적 가치, 태도 형성, ③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진로정보 탐색, 해석, 활용, ④ 진로계획의 수립, 관리, 실천, ⑤ 진로 및 개인 삶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로 구성된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우리나라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진로개발센터와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센터, 한국고용정보원의 생애진로개발팀과 직업연구팀, 그리고 기타 진로교육 전문기관 8개가 담당해 온 역할을 2017년 1월 13일 교육부 공고에 따라 지정된 국가진로교육센터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담당하여 수행할 수 있다. 진로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업무는 ①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② 진로정보망 구축・운영, ③ 진로심리검사 개발, ④ 진로상담 지원, ⑤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⑥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⑦ 진로전

담교사 교육, ⑧ 진로교육 현황 조사 및 평가, ⑨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협력, ⑩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의 10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진로교육은 1999년 직업능력개발원에 국가 위탁 사업으로 진로정보센터 설치와 운영 계획안이 제시되며, 교육부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의해 진로정보센터가 운영되고(정윤경 외, 2016), 2004년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진로지도방안이 제시되어 진로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협의체로 '전국진로지도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으로(정철영 외, 2015)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 2010년 2월에 발표된 '진로교육 종합계획'에서는 고교다양화 및 입학사정관제의 활성화에 따라 확대된 진로교육의 중요성 및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학교에서 진학 위주의 교육에 집중하여 진로탐색 및 결정의 계기가 되는 직접체험의 기회제공이 부족하다고 보고하며,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할당하였다.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을 제정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안정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진로교육에 필요하지만 미흡했던 부분은 보완하고자 하며, 특히 진로교육 법령의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통해서는 진로탐색 및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2015년 공시된 교육부 진로교육법(2015.6.22. 공포, 12.23. 시행)에 정의된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진로교육법령 해설자료, 2015). 각각의 활동을 설명하면,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이고,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고,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또한,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

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 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진로교육법은 자유학기제의 직업체험활동을 위해 지역사회가 협력할 것과, 진로전담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범위를 규정하였다.

교사의 적극적인 진로지도 및 학생의 능동적인 진로교육 참여가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있어 중요하며(정주영, 2010),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자신의 진로탐색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관리를 통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 예컨대, 정양덕 외(2015)의 연구에서, 학생들은 교과통합 진로교육에서는 높은 만족도를, 교과 외 진로교육인 '직업체험 및 진로상담'에서는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자신의 적성을 알게 되는 경로로 학교의 '진로지도나 인터넷, 방송매체, 주변사람'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저학년 한 학기동안 학생들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다(교육부, 2015). 중학교 자유학기 시기의 진로탐색활동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을 연계하여 초등학교 진로교육에서 경험한 '나와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고등학교 시기에 이를 바탕으로 진로설계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중학생 진로탐색활동의 기본방향은 학생의 수요와 흥미를 고려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경험하도록 지원하며 학교의 여건과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4월에 공고된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에서는 그간의 진로교육 추진으로 진로교육법의 제정 및 시행되어 진로 교육에의 안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고, 학교별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여 진로전담교사를 중·고등학교 5,298개교(95.3%)에 배치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2013년 시범운영한 자유학기제

를 2016년 전면시행하고, 국가차원에서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진로체험버스운영 및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을 하며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진로체험처의 마련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단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하였는데, 중앙에서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를 운영하여 중앙부처 및 민간이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고, 지역사회에서는 '자유학기·진로체험지원단 및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별 진로체험처를 발굴하여 학교를 매칭하였다. 한편,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실제 진로 설계 및 준비로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진로상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며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에 비해 질적 관리가 부족하였고 실질적으로 진로교육의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한계점으로 꼽았다(교육부, 2016a).

따라서, 2017년 진로교육활성화 계획에서는 중학교 진로교육을 위해 교과통합 진로교육 운영의 내실화, 진로교육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 교사의 진로교육 연수 및 연구 활동의 강화, 진로체험·협업 프로그램의 다양화, 현장직업체험 확대 운영, 서울진로직업박람회 개최, 특성화고 연계 진로체험 강화, 진로교육 전문인력 확대 배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진로활동실 및 진로체험관(센터)운영, 대상별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제공을 주제로 하여 중학교 진로탐색교육의 내실화를 계획하였다. <표 Ⅱ-3>은 앞서 서술한 진로교육과 관련한 정책 및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Ⅱ-3> 진로교육 관련 정책과 주요 내용

발표 시기	진로교육 관련 정책	주요 내용
2010.02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진로교육 종합계획 (2009-2013)	• 3개 부처(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공동발표 - 체험 중심의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실현 -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2010. 10 (교육부)	진로진학상담교사 충원 및 활용 기본계획	• 연차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계획 - 2011년 1,500명, 2012년 1,500명, 2013년 1,637명, 2014년 835명 배치
2011. 03 (교육부)	교육부에 진로교육정책과 신설	• 중앙부처 수준에서 진로교육정책 리더십을 발휘 하는 부서(진로교육정책과) 신설
2012. 04 (교육부)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 국가 차원에서의 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및 일반고·특성화고 학교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발 제시
2013. 02 (교육부)	2013년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진로교육 요구의 수용성 증대를 추구
2013. 05 (교육부)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	•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중학교 단계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학생 진로체험 및 진로탐색 지원 확대 추구
2015. 06 (교육부)	진로교육법 제정	• 진로교육에 대하여 근거가 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기반이 마련
2016 (교육부)	2017년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	• 체계적인 진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체험·협업 중심의 맞춤식 진로교육을 실시하며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

※장현진(2015)을 인용

나.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우리나라 진로교육과정에서는 중학생 시기를 진로탐색활동의 시기로 정의하고, 진로학습, 진로검사·상담, 진로체험, 진로포트폴리오와 같이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시행하며(교육부, 2016d), 학생이 자기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을 장려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 시행 초기에 설계한 교육적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표 Ⅱ-4>와 같이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 길라잡이(교육부, 2016d) 및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교육부, 2017b)을 제공하며 2016년에는 교육부 주관 초·중·고 동아리 진로탐색활동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진로동아리활동을 장려했다.

<표Ⅱ-4>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및 내용

진로탐색 활동	내 용
진로학습	•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운영 •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용 진로교육 프로그램 재구성 • 8개 교과 교과통합 진로교육 (국어, 도덕, 수학, 과학, 사회, 미술, 기술, 가정) • 학생 진로 포트폴리오 지도 • 기업가 정신·창업 프로그램 학습 • 진로·직업세계의 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
진로검사·상담	• 진로심리검사(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커리어넷 활용) • 검사결과 활용 개별·집단 진로상담 연 2회 실시(담임-교과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가 연계하여 학생개별 상담실시, 커리어넷 진로적성검사 프로그램을 NEIS와 연계 활용)
진로체험	• 현장직업체험, 직업실무체험, 학과체험, 진로캠프, 현장견학 등 직접체험 프로그램 • 체험과정을 사전준비-진로체험활동-사후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생에게 맞는 진로체험처 매칭, 활동 후 만족도 관리 •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활용하여 지역별 진로체험의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진로체험처 발굴을 지원(지역 특성을 살린 진로체험 처 발굴의 예: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스타트업 캠퍼스 활용 진로체험)
진로 포트폴리오	• 개인의 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준비도를 증명하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

※ 교육부(2016d)와 교육부(2017b)를 재구성.

(1) 진로학습

진로학습이란, ‘진로와 직업’ 교과목,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용 프로그램, 교과통합 진로교육, 기업가 정신·창업 프로그램, 진로·직업세계의 이해 및 진로정보 탐색을 통해 학습에의 동기부여를 하며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을 하나의 인간상으로 설정함에 따라, 진로교육을 위한 별도의 교과가 강화되거나, 일부 교과의 소단원으로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9년 12월에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중학교 「진로와 직업」이라는 진로 교과를 선택 교과로 개설하여 진로와 관련된 교과가 독립된 교과목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존 기술·가정 교과목 등에서 다루어지던 산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탐색에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다루었다.

중학교의 진로전환 단계에서는 공부능력, 교우관계, 창의성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진로 및 직업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므로(Ji-Yeon Lee, 2017), ‘진로전환프로그램(School Transition Program; STP)’라고 불리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용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음 단계의 학교로 진학할 학생들이 공부 및 교우 관계에의 스트레스를 덜고 새로운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의 전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Ji-Yeon Lee, 2017). 진로전환 프로그램은 총 네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로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고, 둘째로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며, 셋째로 전환을 해내고, 넷째로 성공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Lee et al, 2013a; 2013b; 2013c; 2013d). 이렇게 STP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자주적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대학 진학에의 의미를 배우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교과 통합 진로교육의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 성취 목표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함승연,

2012). 현재 학교 교육과정상의 독립교과와 진로교육을 통합한 교과 교육을 교과 통합 진로교육이라 하며, 통합의 방법으로는 교과의 재료 및 상황을 직업과 연관하여 교과의 목표와 진로교육의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교과 학습에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교과 내용의 연장선에서 삶과 진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과통합진로교육의 효과성이 눈에 띄는 사례는 주로 인지적인 영역에서의 성취도가 측정되고 있는 수학 과목과 과학 과목의 교과통합진로교육이다. 정혜진, 김원경(2015)은 수학교과 통합연구를 통해 미래의 직업과 교과와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학습 동기 및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예로 이차방정식, 삼각함수, 적분과 같은 수학 학습 내용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와 같은 직업과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숙희, 정영란(2014)은 학생들이 과학교과에서 학습한 내용과 직업세계와의 관련성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 성숙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2) 진로검사·상담

진로검사·상담이란, 학생이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진로의 설계를 위해 커리어넷(www.career.go.kr)과 워크넷(www.work.go.kr)과 같은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을 제공받거나, 학교에서 담임교사 및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상담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전담교사는 2015년 제정된 진로교육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따라 정의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진로전담교사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중등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라고 명한다. 중등학교의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진로전담교사 부전공 자격연수 '진로진학상담 2급' 이수자, 교육대학원의 진로진학상담 전공과정 이수자 혹은 부전공 자격연수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자격이 부여된다.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는 학생의 진로교육 및 학부모의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진로와 직업' 과목을 담당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진로상담 및 심리검사의 해설을 맡는다. 한편,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한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의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진로교육관련 부서를 적극적으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교 및 교사는 진로교육 역량을 증진시키고 학생은 중등학생 수준의 교육적인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적인 진로지도를 통해 학생의 진로성숙도 및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에 관해 오정숙(2014)는 '진로진학상담부장의 역할기대와 실제수행이 다르다.'고 하였으며, 장원석 외(2014)는 '특성화고 진로진학상담교사들이 진로교육에 대한 낮은 인지도 속의 한정된 역할을 맡고 있으며 학교로부터의 취직률 요구와 진로교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고 하여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한계를 보고했다. 유정이 외(2015)는 고등학교만의 특성이 반영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인식하는 어려움을 보고하였는데, 중학교 과정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차별화 되지 않았고, 진로교육과 진학지도를 병행하여 통합적으로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교사의 전문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또한, 입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방해하고,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가치관의 영향 및 교육과정과 정책의 불안정성 등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또한, 정윤경(2016)은 중학생들의 진로 선택이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진로 상담에 한계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제고와 전문적 진로진학상담을 위한 교사 교육 뿐 아니라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 및 교과목 교사, 학생, 학부모의 소통 및 협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반영하여 2015년 진로교육법의 제정은 기존에 오직 진로진학 상담교사에 의해서 행해졌던 진로교육에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학지도 담당교사와 같은 모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진로체험

진로체험이란, 2015년 공시된 진로교육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특강 등의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진로체험은 현장 직업 체험형, 직업 실무 체험형(모의일터 직업체험), 현장 견학형, 학과 체험형, 진로 캠프형, 강연·대화형(간접체험)이 있다(교육부, 2016d). 예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잡월드(Korea Job World)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으로, 2012년에 개관하여 직업체험프로그램을 개설·운영, 직업관련 자료·정보의 전시 및 제공, 청소년 등에 대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교사 등에 대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여 진로체험 활동을 돕고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과 관할 지자체,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이 운영되고 이의 실무기구로서 '자유학기제·진로체험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체험형 진로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진로체험 운영 절차 및 안전수칙을 '꿈길'이라는 인터넷 웹 사이트로 공개하고 게시판에 진로 체험처를 등록할 수 있게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웹 사이트를 통해 '진로체험 교육과정 길잡이'와 같이 다양한 진로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의 '체험 중심 교과활동'을 강조하며, '자주적인 사람'을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자기관리 역량'을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정한 동시에 각각의 독립 교과목에서도 진로교육과 관련한 역량을 구체화하였다. '자기관리 역량'의 의미는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교육부, 2015).

선행 연구인 김재철과 황매향과 김아영(2011)의 연구와 김기헌과 유홍준과 오병돈(2014)의 연구에서는 진로체험이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4) 진로포트폴리오

진로포트폴리오란, 개인의 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거나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준비의 정도를 증명하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교육부, 2016d). 학생들은 진로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자유학기를 중심으로 초·중·고교의 진로탐색 및 상담·지도 활동 전반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여 지속적인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다(교육부, 2016d).

진로포트폴리오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인 진로포트폴리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이 교사주도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학생들에 비해 진로성숙 및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많이 향상되었다는 연구(신임선, 장윤옥, 2012)에서는, 특히 안정성, 목표지향성, 자기주장의 진로정체감이 유의하게 더 많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이공계 포트폴리오 작성 활동으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로 대회참가와 같은 스펙을 쌓으려고 했던 학생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스스로 찾아 나서고 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감정이 강화되었으며, 다만, 한계점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진로포트폴리오의 특성 상 학생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한 걱정과 부담 및 예상치 못한 결과에 따른 혼란이 있어(서원석 외, 2015) 이에 대한 학교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분야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관심 분야 정보 획득, 타인을 통해 자신을 재발견하고 이를 자기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하였다(서원석 외, 2015). 다시 정리하면, 선행연구들에서는 진로포트폴리오는 학교의 지원 정도 및 꾸준한 포트폴리오 작성 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를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5) 동아리활동

동아리 활동이란,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학생들이 모여 학생 자치적으로 혹은 교사의 도움을 얻어 운영되는 모임 활동이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와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고 학생의 정의적 행동 특성을 발달시키며 자기주도적으로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김미연, 김정해, 2013).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은 2016년 8월에 대한민국 청소년 동아리 활동 엑스포를 개최하여 늘어난 '진로 관련 동아리'에 대한 정보 및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외의 동아리 간 교류를 증진하며 지도교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여 진로동아리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학생들은 기존에 '진학'의 목적으로만 참여 및 운영되어 왔던 동아리활동에 '꿈 찾기', '적성 찾기'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진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16년 12월에는 교육부 주관 전국 초·중·고 동아리 진로탐색활동 경진대회를 열어 학교 소속 동아리 및 청소년 시설·사회복지관 소속 동아리를 대상으로 진로동아리의 진로탐색활동의 효과성, 학생주도성, 파급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를 선발 및 시상하고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공유하고자 하였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진로동아리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이현미, 정제영(2017)은 진로동아리 경험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김경식, 이현철(201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수준의 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의 초기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김미연, 김정해(2013)의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자기효능감은 동아리활동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진로교육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으며(이기정, 강충열, 2017), 그 참여도가 높을 때 교육적 효과가 더 크다(이준하, 2001; 원관희, 2002; 안종미, 2004; 정명섭, 2006)고 할 수 있다.

2. 진로탐색활동 태도

태도(attitude)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되는 정의적 특성들 중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다(Allport, 1935). 사건, 사람, 사물 등의 외적 자극에 반응하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Allport, 1968, Fishbein & Aizen, 1975)를 의미하며, 이는 어떠한 심리적 대상에 대해 느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의 정도를 의미한다(상경아, 백순근, 2005; 김미림, 2010; Thurstone, 1931; Warren, 1934; Fishbein & Aizen, 1975; Muller, 1986; Sprinthall, 1990; Anastasi & Urbina, 1997).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동기 유발을 위한 준비성(Newcomb, 1950)이 되고, 교육학자들은 태도가 교육적 맥락에서 갖는 형태와 그 의미에 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전통적인 선행 연구에서는 태도가 신념, 정서, 행동의 영역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고 보고하며, 어떤 대상에 대한 긍정적 신념이 긍정적 정서, 긍정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였고(김거현, 유인환, 2017; Smith, 1947; Katz & Stotland, 1959; Rosenberg & Hovland, 1960; Fazio & Olson(2003)의 연구에서는 이를 'A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A는 나를 기분 좋게 한다.', '나는 A를 하고 있다.'의 예로 설명하였다.

Darkenwald와 Hayes(1988)의 연구에서는 즐거움, 필요도 및 중요도, 가치를 태도의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컴퓨터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는 Grassard와 Loyd(1986)의 컴퓨터에 대한 태도 척도에서는 유용성, 자신감, 불안감, 선호도를 측정하였다. 박경숙, 이혜선(1976), 김재철(2004), 상경아, 백순근(2005), 박숙현(2015)의 연구에서는 태도의 척도에서 가치에 대한 인식, 흥미를 측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태도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정의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태도'를 어떤 대상에 대해 준비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의 정도이며,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를 정리한 내용은 <표 Ⅱ-5>과 같고, 이를 근거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표 Ⅱ-6>의 '가치', '호감', '기대', '준비'의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를 ‘가치’, ‘호감’, ‘기대’, ‘준비’의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정하고, ‘중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필요를 느끼고, 관심이 있으며,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표 Ⅱ-5> 학생의 태도 측정 변인

연구자	척도
Smith(1947)	감정, 인지, 행동지향
Rosenberg, Hovland(1960)	인지, 행동, 정서
Gressard, Loyd(1986)	유용성, 자신감, 불안감, 선호도
Darkenwald, Hayes(1990)	즐거움, 필요도 및 중요도, 가치
박경숙, 이혜선(1976)	흥미, 목적의식
김재철(2004)	필요성 인식, 자신감, 흥미
상경아, 백순근(2005)	흥미, 가치의 인식
김정현, 박현옥(2014)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반응 혹은 행위
박숙현(2015)	흥미, 자신감, 가치인식, 자기통제
김거현, 유인환(2017)	불안, 호감, 자신감

<표 Ⅱ-6>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개발

척도	가치	호감	기대	준비
Smith(1947)		○	○	○
Rosenberg, Hovland(1960)	○	○	○	○
Gressard, Loyd(1986)	○	○		
Darkenwawld, Hayes(1990)	○	○		
박경숙, 이혜선(1976)		○		○
김재철(2002)	○	○		
상경아, 백순근(2005)	○	○		
김정현, 박현옥(2014)	○	○	○	○
박숙현(2015)	○	○	○	
김거현, 유인환(2017)		○	○	

3.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만족(satisfaction)이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상태(송병국, 1987; 백순근, 박경인, 2010; Campbell, 1976)이며, 교육수요만족도란 학생들의 교육경험에 대한 주관적 반응(Austin, 1993)을 의미한다. 만족은 행복, 열망, 기대보다 그 준거가 사람, 사물을 대상으로 하여 더욱 구체적이다(고순철, 1992; Campbell, 1976).

기존에 진로교육의 특성에 맞게 그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도구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의 청소년 진로·직업 실태조사(NYPI, 2009), 교육과학 기술부의 진로활동별 경험과 만족도 조사(교육과학기술부, 2012), 고졸자취업진로조사 HSGOMS(한국고용정보원, 2013), 한국고용패널조사 KEEP(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교육부, 2015b)가 있고, 이들 질문지는 진로학습, 진로검사·상담, 진로체험, 진로포트폴리오, 동아리활동 등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한국고용패널조사인 KEEP(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3)에는 최근 중요성을 인지하고 운영되고 있는 진로체험의 항목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진로정책의 변화 및 발전에 따라 측정 도구의 문항 구성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2015년에 시행된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에서도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있지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가 다양하였다.”, “수업내용은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다루었다.”, “수업시간에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졌다”, “학교 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선생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조언을 해 주셨다.”, “나는 이번학기 동안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다.”와 같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묻는 대신에, 구체적인 진로탐색활동의 만족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측정도구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연구논문의 수준에서 측정하기 위한 도구

및 하위영역을 정리하면 <표 Ⅱ-7>와 같고, 이들 척도가 가진 공통적인 하위영역을 진로탐색활동의 특성에 맞게 정리하여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를 <표 Ⅱ-8>과 같이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을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로 정하고, '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의 내용에 재미를 느끼고, 장소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 Ⅱ-7> 학생의 만족도 측정 변인

연구자	척도
최정희(2006)	교실분위기, 수업과 학습, 학교교칙,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 복지시설, 학교 주변환경
김미숙(2007)	교사, 내용, 방법, 효과, 평가, 환경, 상담서비스
김양분, 류한구, 남궁지영, 김일혁, 전민정(2007)	사회·심리적 환경, 교수-학습 활동, 교과 외 활동, 학교 운영, 교육 결과
박경인(2010)	학교운영, 학교교육환경, 학교교육결과
이경희, 이안수(2011)	내용, 환경, 시간, 지도, 평가

<표 Ⅱ-8>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개발

연구자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
최정희(2006)	○		○	
김미숙(2007)	○	○	○	○
김양분, 류한구, 남궁지영, 김일혁, 전민정(2007)	○		○	○
박경인(2010)			○	○
이경희, 이안수(2011)	○	○	○	○

4. 진로성숙도

가. 진로성숙

진로성숙(career maturity)은 현재까지 가장 종합적인 진로이론인 진로발달이론(Super, 1955)의 핵심적 개념 중 하나이다. Crites(1978)는 이를 '진로선택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및 정의적 특성의 동일 연령층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보다 일관되고 확실하며 현실적인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김봉환 외, 2010).

Super(1955)는 청소년기를 진로과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로 보고, 이에 따른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Super(1955)는 그의 초기 진로발달이론에서 진로발달과업을 중심으로 성장기(growth stage), 탐색기(exploration stage), 확립기(establishment stage), 유지기(maintenance stage), 쇠퇴기(decline stage)로 구분하여 그 중 탐색기를 14세~24세의 청소년기라 하였으며, 1990년에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기간을 전체 진로의 단계를 다시 반복하는 진로 순환 및 재순환 단계로 정의하였다.

중등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알맞은 진로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진로교육활동의 효과를 측정하는 종속변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어윤경, 2011; 김경식, 이현철, 2012; 김기헌 외, 2014; 김봉환, 허은영, 2006; 김소라, 황영준, 2016; 김해인 외, 2016 박미란, 이지연, 2010; 박효정, 한미영, 2016; 배상훈 외, 2014; 빈윤경 외, 2015; 신은경 외, 2016 윤지윤, 2015; 임현정, 김난옥, 2011), 청소년 시기의 진로성숙도는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정도(임언 외, 2012)라고 하였다.

나. 진로성숙도의 구성요인 및 측정도구

Super(1965)는 '진로성숙의 정도'에 대해 '생애 발달에서 탐색기에서 쇠퇴기에 이르는 직업발달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도달한 위치'라고 정의하고, ①진로계획, ②직업탐색, ③의사결정, ④직업세계에 대한 지식, ⑤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지식 등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Crites(1978)은 '진로성숙의 정도'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며 진로선택의 '내용'과 '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였고, 일관성 및 현실성은 진로선택의 '내용'에, 능력 및 태도는 진로선택의 '과정'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는 진로선택의 내용에 관심을 두고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권에서 개발된 진로성숙도 검사를 우리나라에 맞게 개발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중심적인 문화적 특성에 맞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Leong, Kim, 1991). 진로성숙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검사도구는 Super et. al. (1979)의 Career Development Inventory(CDI)와 Crites(1978)의 Career Maturity Inventory(CMI)가 있다. 이러한 이론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개발되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진로성숙도 검사의 종류로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작된 '진로성숙도검사(장석민 외, 1991)', '초등학생용 진로발달검사(안창규, 1998)',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 등이 있다. 최근 국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진로성숙도 검사 중 임언 외(2001)가 개발하고 임언 외(2012)가 개정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는 진로에 대한 태도, 능력 그리고 행동을 하위 영역으로 하고 있다.

임언 외(2012)의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에서 단답식 문항을 제외하고 2-5점의 Likert 척도로 이루어진 총 63문항을 살펴보면,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 중 태도는 계획성(9 문항), 직업에 대한 태도(7 문항), 독립성(6 문항)의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총 2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능력은 자기이해(8 문항), 정보탐색(4 문항), 합리적 의사결정(7 문항)의 5점 척도(전

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와 4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진 희망 직업에 대한지식(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행동 영역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15 문항)의 2점 척도로, ‘예’에 1번, ‘아니오’에 2번을 부여하며 총 15개의 역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점수의 계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변인 간의 관계

가.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교육활동에 대한 태도와 만족도의 유의한 인과관계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 학습태도가 학교생활만족도를 강화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강명희, 유영란, 유지원, 2014), 학교생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강명희 외, 2014; 권혜경, 이희경, 2004)와 학생의 체육교과 만족도는 체육교과의 태도와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연구(김종환, 2007)가 있다. 아울러, 만족도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내적동기,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정도, 물리적 환경, 참여도가 있으며(정재삼, 임규연, 2000), 이 중 참여도는 학습자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존의 연구에는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학생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나, 이용숙(2016)의 연구에서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며 청소년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인식점수가 직업체험, 꿈 찾기, 전문직업인 진로특강, 커리어넷 프로그램 순으로 높았고 만족도 점수는 꿈 찾기, 직업체험, 전문직업인 진로특강, 커리어넷으로 나타나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상관이 있으며, 특별히 전문직업인 진로특강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전문직업인 진로특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기대수준과 만족수준의 일치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최영문, 2016). 이춘화(2004)의 연구에서는 기대수준과 만족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 같은 대상을 측정하는 같은 문항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그에 대해 만족한 정도'를 측정하여 연구 참여자의 교육활동에 대한 기대와 만족도의 관계를 이해하려 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과 만족 수준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나. 진로탐색활동의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지금까지 진로성숙도를 종속 변인으로 하는 연구들에서는 학생의 배경변인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탐색활동의 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9> 진로성숙도 영향요인을 다룬 선행연구

진로성숙도 영향요인	배경변인	진로교육의 양	진로교육만족도
연구자	박미란,이지연(2010), 이광자(1998), 이효정(2001), 김해인 외(2016), 신희경,김우영(2005), 김경식,이현철(2012), 이현미,정제영(2017), 정윤경,이상은(2005)	김경식, 이현철(2012), 김기헌 외(2014), 김봉환, 허은영(2006), 김소라, 황영준(2016), 박효정, 한미영(2016), 배상훈 외(2014), 빈윤경 외(2015), 신은경 외(2016), 임현정, 김난옥(2011) 김효선, 양승호(2012), 김혜래(2007), 송병국, 박정배(2006), 황여정(2007), 남수정(2011) 김재철 외(2011)	주영주 외(2013), 이효정(2001), 어윤경(2011), 윤지윤(2015)

학생의 배경변인인 개인변인(성별, 자아정체감 등), 가정변인(부모의 교육수준, 소득 등), 학교변인(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등)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실시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라면, 진로교육의 양적 투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기부터 주로 이루어진 연구는 진로교육의 양과 관련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진로교육의 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성을 다룬 선

행연구에서는 진로학습,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상담, 진로포트폴리오와 같은 실질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의 실행이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김경식, 이현철, 2012; 김기헌 외, 2014; 김봉환, 허은영, 2006; 김소라, 황영준, 2016; 박효정, 한미영, 2016; 배상훈 외, 2014; 빈윤경 외, 2015; 신은경 외, 2016; 임현정, 김난옥, 2011). 그러나 일부 연구들에서는 학생이 경험하는 진로교육의 양이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며(김효선, 양승호, 2012; 김혜래, 2007; 송병국, 박정배, 2006), 진로교육의 질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진로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진로교육의 수혜자의 관점에서 '진로교육만족도'를 측정하고자 한 연구들이 있다. 동아리활동과 같은 진로탐색활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효정, 2001)에서는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나며, 김소라, 황영준(2016)에서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수록 '계획성', '자기이해역량', '독립성', '직업태도', '진로탐색행동'과 같이 진로성숙도의 하위영역과도 같은 역량이 향상된다고 보고했고, 주영주 외(2013), 윤지윤(2015)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진로교육활동 후에 측정한 진로교육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소년 시기에 만족스러운 진로상담을 경험한 학생들이 내적 동기에 의해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에 대한 만족감도 높았으며 진로성숙도도 높았다고 어윤경(2011)이 보고하였고, 진로성숙도를 세 가지 이상의 시점에서 측정한 어윤경(2008)의 연구에서는 만족스러운 진로교육을 경험한 학생이 진로성숙도의 초기치(intercept)가 높았으며, 이후 진로성숙도가 감소하는 시기에 감소의 속도가 느렸고, 증가하는 시기에 증가의 속도가 빨랐다고 보고하며, 진로성숙도의 초기치(intercept)와 변화궤적(slope)이 진로교육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정리하였다. 이렇게 선행연구들에서는 만족스러운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진로성숙도

선행연구에는 앞에서 제시한 <표 Ⅱ-9>와 같이 진로탐색활동의 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많았으나, 진로탐색활동에의 태도를 측정하여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습 상황에서의 정서 상태인 '낙관성'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권혜경, 이희경(2004)의 연구와 진로체험학습에서 교사의 주도성이 낮고 학생의 주도성이 높을수록 학생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김신영, 최운실(2014)의 연구를 참조하여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진로성숙도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학습 상황에서의 정서 상태의 개념으로 학습 동기를 들 수 있다. 학습동기란 학습자가 학습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심리적 태세로 학습에 의하여 어떤 결과를 성취하려는 강한 욕망이다(정원식, 1974). 임은미(1998)는 학습동기가 진로성숙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김명희, 하정희(2008)은 개인이 새로운 상황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교과 학습태도는 학습의 동기와도 같은 맥락을 갖고 있으며, 학습 동기 수준을 높일수록 학습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변호승, 서정희, 2006; Bennett & Lockyer, 1999).

아울러, 진로교육의 상황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본 최윤정, 김지은(2012)의 연구에서는 진로발달 관련 변인인 자아개념과 진로성숙도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차숙, 최웅용(2011)의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성숙도 척도의 '자기이해'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학습 태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Ⅲ. 연구가설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이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을 진술하기에 앞서 주요 변인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변인의 의미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가.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태도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행되는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의 태도를 '중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필요를 느끼고, 관심이 있으며,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정도'로 정의하고, 중학생들의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초청강연', '진로정보탐색'에 대한 '가치', '호감', '기대', '준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총 16개의 모든 문항은 5점 리커르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나.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진행되는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의 만족도를 중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재미를 느끼고, 장소에 만족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중학생들의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초청강연', '진로정보탐색'에 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총 16개의 모든 문항은 5점 리커르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학생들이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본다.

다. 진로성숙도

이 연구에서 활용한 진로성숙도 척도는 임언 외(2012)가 개정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지'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여 이 연구의 대상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중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지식', '행동'을 살펴볼 수 있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인 '태도'와 '의사결정'은 5점, '지식'은 4점, '행동'은 2점의 리커르트(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특별히 '행동'에 해당하는 문항들은 '예'에 1, '아니오'에 2로 응답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진로성숙도의 점수를 계산할 때는 '아니오'를 0점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아울러, 하위영역의 구분은 기존 검사지의 영역구분을 참조하였고, 기존의 문항 수를 연구 대상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였다.

2. 연구 가설 및 연구 모형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고찰을 토대로 설정된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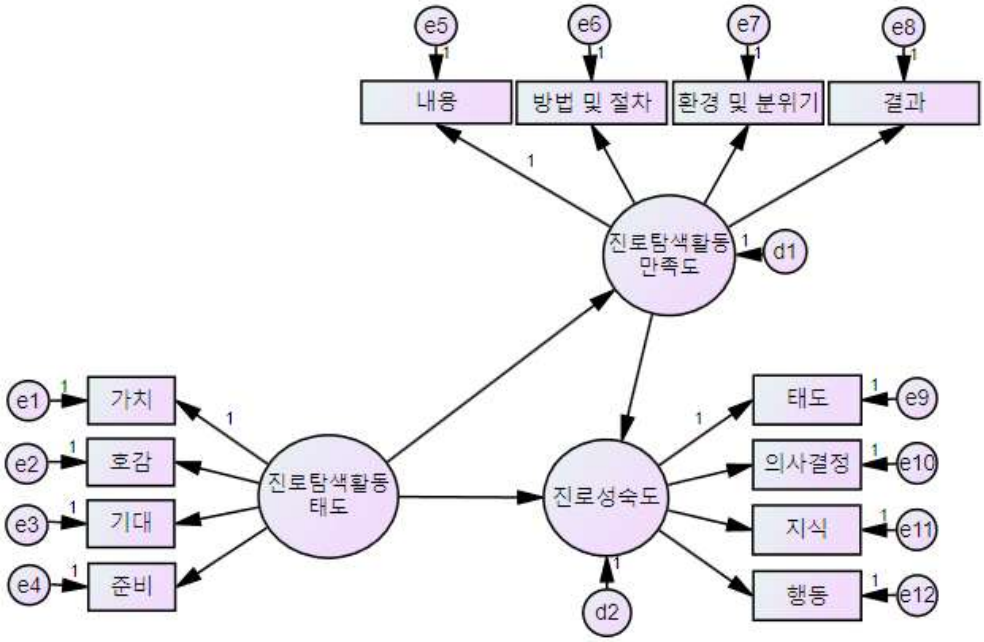
가설 2.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의 [그림 Ⅲ-1]은 이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이다.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하여 관련성이 확인된 중학교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만족도,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히고, 특히 중학교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진로성숙도와의 관계에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매개역할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e5
e6
e7
e8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d1
e1
가치
e2
호감
e3
기대
e4
준비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성숙도
d2
태도
e9
의사결정
e10
지식
e11
행동
e12

[그림 Ⅲ-1] 연구모형

Ⅳ.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G시의 G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 학생의 2학기 때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지의 데이터를 자유학기제 시행 전과 진행 후의 시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당 중학교를 선정할 때에는 소속 학교 진로 담당 교사의 조언을 참고하고 해당 학교의 당해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살펴보아 중학교 자유학기제 내의 진로탐색활동이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였고, 아울러 해당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참고하였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 244명 중 학번과 성별을 모두 표기한 학생은 228명이었고, 최종 자료 분석 및 연구의 대상은 그 중 성실하게 응답한 학생 178명이었다.

<표 Ⅳ-1> 연구대상

	성별		전체
	여자	남자	
검사대상	119명	109명	228명
분석대상	95명	83명	178명

2. 측정 도구

이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 도구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개발하고 보완한 것이다.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및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는 전문가 검토(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8명, 교육학 박사 1명)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 타당도가 높은 문항들로 확정하였고, 진로성숙도 척도는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2012)'를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해당 학교의 일정을 고려하여 진로탐색활동 태도검사 및 진로성숙도 검사에 해당하는 사전검사를 2017년 9월 12일에 실시하였고,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검사 및 진로성숙도 검사에 해당하는 사후검사를 2017년 10월 31일에 실시하여 두 검사에 약 7주의 간격을 두었다.

가. 진로탐색활동 태도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진로탐색활동 태도의 하위 영역인 '가치', '호감', '기대', '준비'를 정하고,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활동 지침 및 해당 학교 진로담당교사의 조언을 반영하여 중학교 1학년 시기의 자유학기제에 진행되는 진로탐색활동의 종류를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초청강연', '진로정보탐색'으로 정하였다. 문항은 총 16개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중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필요를 느끼고, 관심이 있으며,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정도를 측정하도록 개발하였다. 진로탐색활동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은 다음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영역

하위 영역	문항내용
가치	1. 진로탐방은 다양한 진로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2. 직업체험은 내가 선택한 진로를 체험해보고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3. 진로초청강연은 내 진로를 위한 정보를 얻어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4. 진로정보탐색은 내 진로를 위한 정보를 얻어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호감	5. 나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진로와 관련한 설명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 6.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체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7. 나는 진로 전문가에게 진로와 관련된 강연을 듣고 진로를 계획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8. 나는 진로에 대한 자료를 읽고 다양한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다.
기대	9. 나는 진로탐방에 열심히 참여하여 많은 진로를 탐색하고 싶다. 10. 나는 직업체험을 통해 원하는 직업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체험해보고 싶다. 11. 나는 진로초청강연에서 진로전문가에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질문하고 싶다. 12. 나는 진로정보탐색에 열심히 임하여 진로정보를 진로 계획에 잘 활용하고 싶다.
준비	13. 나는 진로탐방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가고 싶은 진로탐방 장소를 생각해 보았다. 14. 나는 직업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체험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보았다. 15. 나는 진로초청강연에 대해 알아보고 듣고 싶은 진로강연을 생각해 보았다. 16. 나는 진로정보탐색에 대해 알아보고 얻고 싶은 진로정보를 생각해 보았다.

1)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정확한 정도와 일관성이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적은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크론박 알파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활용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일수록 크론박 알파계수는 커지게 되며, 이는 문항 내적 일치도(inter-item consistency) 혹은 일반화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라고 하기도 한다(백순근, 2012).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 요인 신뢰도는 .914으로 높게 나타나, 해당 척도가 신뢰롭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Ⅳ-3>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신뢰도

척도	신뢰도
가치	.868
호감	.830
기대	.833
준비	.898
전체	.914

2)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안면타당도 분석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특정 도구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여 타당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도구 개발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안면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태도를 '가치', '호감', '기대', '준비'의 하위영역으로 나눈 다음, 둘째, 그 하위 영역 각각을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 '관심이 있는 정도', '열심히 하려는 마음가짐 정도', '마음이 준비된 정도'로 정의하고, 셋째, 그에 대한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전문가 검토(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8명, 교육학 박사 1명)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척도를 확정하였다.

3)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이므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주고 있는지를 이론적인 가설을 통해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할 수 있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로탐색활동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 하위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4>과 같다.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네 가지 하위영역 및 총점 간의 상관은 .768이상 .899이하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p< .001). 이는 네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진로탐색활동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Ⅳ-4>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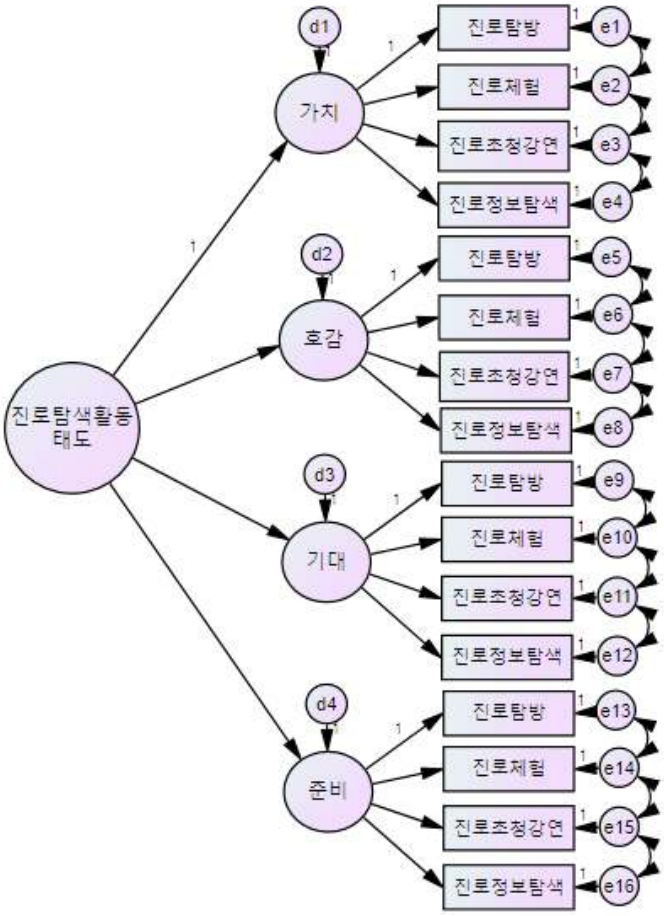
	가치	호감	기대	준비
호감	.638***			
기대	.688***	.785***		
준비	449***	.542***	.561***	
총점	.816***	.882***	.899***	.768***

***p< .001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탐색활동 태도를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요인의 수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와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각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 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결과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왜도(-.339이상, .407이하), 첨도(-.242이상, .118이하)를 나타내어 정상분포 조건(왜도 절대치≤2, 첨도 절대치≤4)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각각 네 가지의 진로탐색활동을 측정하는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음의 [그림 Ⅳ-1]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1)2)]

1) 이 척도는 각 하위영역의 문항에서 진로탐색활동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한 점을 제외하고는 각 하위영역별로 매우 유사한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같은 하위영역 내 문항 간에 오차상관을 설정함

2)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고 모형을 분석하였을 때,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인 '기대'의 설명오차인 d3에 0에 가까운 음수 분산 - .012이 제시됨. 이러한 경우는 헤이우드 케이스(Heywood Case)에 해당하므로 d3의 분산 값을 0으로 고정하여 분석을 진행함(Dillon, Kumar, Mulani, 1987).



[그림 Ⅳ-1]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Ⅳ-5>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적합도

태도	χ^2(df)	TLI	CFI	RMSEA
전체	187.747(89)***	0.903	0.937	0.076

***p< .001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χ^2검증에서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χ^2값이 커지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χ^2값을 자유도(df)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1998). 위 모형의 경우 표준 카이제곱의 값이 약 2.11으로 제시되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χ^2와 달리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 중 하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의 CFI와 TLI 값은 각각 .903과 .93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간명성 조정 지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와 .08 사이의 값은 적절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과 .10 사이의 값은 보통 수준(mediocre fit)으로, .10보다 큰 값은 나쁜 수준(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 연구에서의 RMSEA값은 .076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표 Ⅳ-6>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584이상 .824이하로,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835이상 1.000[3]이하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3)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기대'요인의 설명오차인 d3의 음수분산 -.012를 0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태도 → 기대의 표준화 계수가 1로 제시됨

<표 Ⅳ-6>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모형의 계수 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가치 → 진로탐방	1.000***	.726
	가치 → 진로체험	.973	.701
	가치 → 진로초청강연	1.214***	.818
	가치→ 진로정보탐색	1.047***	.761
	호감 →진로탐방	1.000***	.756
	호감 → 진로체험	.720***	.584
	호감 → 진로초청강연	1.028***	.824
	호감 → 진로정보탐색	1.059***	.807
	기대 → 진로탐방	1.000***	.738
	기대 → 진로체험	1.905***	.719
	기대 → 진로초청강연	.942***	.682
	기대 → 진로정보탐색	1.034***	.725
	준비 → 진로탐방	1.000***	.708
	준비 → 진로체험	0.788***	.644
	준비→진로초청강연	0.866***	.648
	준비→진로정보탐색	0.976***	.682
2차 요인 부하량	태도 → 가치	1.000***	.835
	태도 → 호감	1.376***	.946
	태도 → 기대	1.332***	1.000[4]
	태도 → 준비	1.079***	.722

***p< .001

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조하여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만족도 척도의 하위 영역인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를 정하고,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활동 지침 및 해당 학교 진로담당교사의 조언을 반영하여 진로탐색활동의 종류를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초청강연', '진로정보탐색'으로 정하였다. 문항은 총 16개의 5점 리커르트 척도로 구성되었고, 중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대해 재미를 느끼고, 활동의 방법 및 장소가 만족스러웠으며, 활동이 도움이 된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4)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기대'요인의 설명오차인 d3의 음수분산 -.012를 0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으므로 태도 → 기대의 표준화 계수가 1로 제시됨

<표 Ⅳ-7>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

하위 영역	문항내용
내용	1. 나는 진로탐방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재미있었다. 2. 나는 직업체험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 재미있었다. 3. 나는 진로초청강연의 내용이 재미있었다. 4. 나는 진로정보탐색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재미있었다.
방법 및 절차	5. 나는 진로탐방의 1회당 시간이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6. 나는 직업체험의 1회당 시간이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7. 나는 진로초청강연의 1회당 시간이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8. 나는 진로정보탐색의 탐색 도구가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환경 및 분위기	9. 나는 진로탐방의 장소가 탐방에 집중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직업체험의 장소가 직업을 충분히 체험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11. 나는 진로초청강연의 장소가 강연에 집중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12. 나는 진로정보탐색의 장소가 정보를 탐색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결과	13. 진로탐방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4. 직업체험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5. 진로초청강연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6. 진로정보탐색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정확한 정도와 일관성이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적은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12). 이 척도의 신뢰도 검사를 위해 크론박 알파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활용하였다. 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일수록 크론박 알파계수는 커지며, 이는 문항 내적 일치도(inter-item consistency) 혹은 일반화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라고 하기도 한다(백순근, 2012).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 신뢰도는 .920로 높게 나타나 해당 척도가 신뢰롭다는 것을 아래 <표 Ⅳ-8> 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Ⅳ-8>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척도	신뢰도
내용	.855
절차 및 방법	.835
환경 및 분위기	.806
결과	.777
전체	.920

2)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안면타당도 분석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란 관련 분야 전문가가 특정 도구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검토하여 타당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를 어떤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도구 개발 과정에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안면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태도를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의 하위영역으로 나눈 다음, 둘째, 그 하위 영역 각각을 '내용이 재미있는 정도', '시간 및 도구가 적절한 정도', '장소가 만족스러운 정도', '활동의 결과가 도움이 된 정도'로 정의하고, 셋째, 그에 대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전문가 검토(측정·평가 전공 교수 1명,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8명, 교육학 박사 1명)를 바탕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최종적으로 안면타당도가 양호한 문항들로 척도를 확정하였다.

3)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이므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주고 있는지를 이론적인 가설을 통해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할 수 있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둘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다.

먼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요인들이 서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각 하위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9>와 같다.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네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639이상 .867이하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는 네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진로탐색활동 태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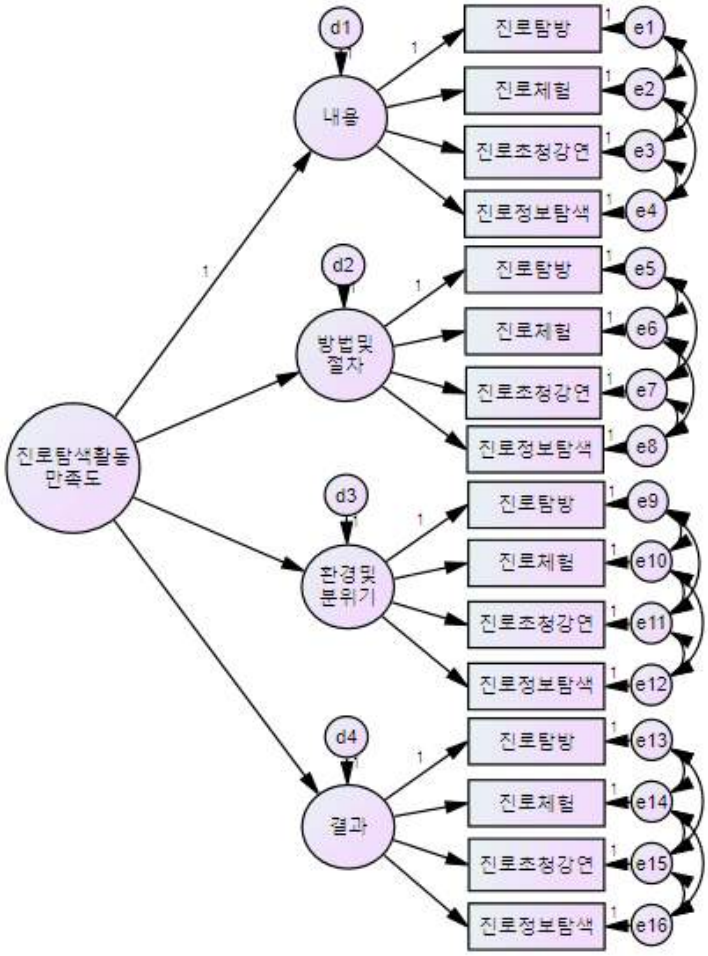
<표 Ⅳ-9>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
방법 및 절차	.358***			
환경 및 분위기	.631***	.412***		
결과	.601***	.274***	.702***	
총점	.817***	.639***	.867***	.832***

***p< .001

다음으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란 선행연구의 분석을 토대로 요인의 수와 의미가 연구자에 의해 사전에 확정된 경우에 실시하는 요인분석으로, 요인의 모형이 주어진 자료의 어느 정도 합치하는가를 확인하고자 사용하는 방법이다(박현정, 2005).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각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 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결과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모든 하위요인에서 왜도는 -1.175이상, -.253이하, 첨도는 .462이상 1.732이하를 나타내어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절대치≤2와 첨도 절대치≤4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각각 네 가지의 진로탐색활동을 측정하는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림 Ⅳ-2]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5)]

5) 이 척도는 각 하위영역의 문항에서 진로탐색활동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한 점을 제외하고는 각 하위영역별로 매우 유사한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에서 같은 하위영역 내 문항 간에 오차상관을 설정함



[그림 Ⅳ-2]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Ⅳ-10>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적합도

만족도	χ^2(df)	TLI	CFI	RMSEA
전체	172.369(80)***	0.910	0.947	0.081

***p< .001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χ^2검증에서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χ^2값이 커지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χ^2값을 자유도(df)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1998). 위 모형의 경우 표준 카이제곱의 값이 약 2.15으로 제시되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χ^2와 달리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의 CFI와 TLI 값은 각각 .910, .947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간명성 조정 지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와 .08 사이의 값은 적절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과 .10 사이의 값은 보통 수준(mediocre fit)으로, .10보다 큰 값은 나쁜 수준(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 연구에서의 RMSEA값은 .081으로 보통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표 Ⅳ-11>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356이상 .925이하로,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687이상 1.000이하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Ⅳ-11>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모형의 계수 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내용 → 진로탐방	1.000	.720
	내용 → 진로체험	0.059***	.766
	내용 → 진로초청강연	1.133***	.772
	내용 → 진로정보탐색	1.210***	.871
	방법 및 절차 → 진로탐방	1.000	.417
	방법 및 절차 → 진로체험	0.874***	.356
	방법 및 절차 → 진로초청강연	1.258***	.565
	방법 및 절차 → 진로정보탐색	1.841***	.925
	환경 및 분위기 → 진로탐방	1.000	.728
	환경 및 분위기 → 진로체험	.893***	.685
	환경 및 분위기 → 진로초청강연	1.019***	.705
	환경 및 분위기 → 진로정보탐색	.861***	.693
	결과 → 진로탐방	1.000	.725
	결과 → 진로체험	1.045***	.815
	결과 → 진로초청강연	1.177***	.857
	결과 → 진로정보탐색	1.164***	.874
2차 요인 부하량	만족도 → 내용	1.000	.816
	만족도 → 방법 및 절차	0.550***	.687
	만족도 → 환경 및 분위기	1.304***	1.000
	만족도 → 결과	1.209***	.837

***p< .001

다. 진로성숙도 척도

이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진로성숙도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표 Ⅳ-12>은 이 연구에서 진로성숙도의 측정을 위해 최종적으로 사용한 문항을 하위영역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6)]

6) 각 문항의 번호들(예: 의사결정31, 지식1-3 등)은 해당 검사지의 출처인 커리어넷(http://www.career.go.kr) 웹사이트의 교사용 채점 서비스인 '지필고사 시스템' 양식 상단의 문항 번호를 그대로 사용함.

<표 Ⅳ-12>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영역

하위영역	내용	문항
태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의 진로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는 정도	태도5.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태도8.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태도12.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	내가 관심 있는 진로 정보를 찾으며,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알고,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듣는 정도	의사결정31. 나는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의사결정35. 나는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의사결정36.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지식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갖는 방법과 그 직업의 근무환경 및 일의 내용에 대해 아는 정도	지식1-3.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 조건을 잘 알고 있다. 지식1-4.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의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지식1-6.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행동	나의 진로를 위해 최근 1년 이내에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 및 직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나의 진로를 준비하는 정도	행동3.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행동8.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 행동9.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 또는 취업)를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임언 외(2012)의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를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진로성숙도를 활동 전과 후에 각각 측정하여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을 기점으로 달라진 중학생의 진로성숙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태도, 자기이해, 정보탐색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효능감에 대한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진로교육의 단기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임언 외, 2012)고 보고하였다.

1) 진로성숙도 척도의 신뢰도 분석

신뢰도(reliability)란 검사 도구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정확한 정도와 일관성이 있는 정도, 즉 측정의 오차(measurement error)가 적은 정도를 의미한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크론박 알파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활용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한 검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이 서로 동질적일수록 크론박 알파계수는 커지게 되며, 이는 문항 내적 일치도(inter-item consistency) 혹은 일반화 계수(generalizability coefficient)라고 하기도 한다(백순근, 2012).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 요인 신뢰도는 .863로 나타나 해당 척도가 신뢰롭다는 것을 아래 <표 Ⅳ-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Ⅳ-13> 진로성숙도 척도의 신뢰도

척도	신뢰도
태도	.675
의사결정	.747
지식	.723
행동	.760
전체	.863

2) 진로성숙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분석

구인(construct)이란 어떤 개념이나 특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상적인 하위개념 혹은 하위특성이므로, 그것이 정말로 그러한 특성을 재어주고 있는지를 이론적인 가설을 통해 경험적·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확인할 수 있다(백순근, 2012).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진로탐색활동을 위한 진로성숙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첫째, 하위영역 간, 그리고 각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을 분석하고,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정하였다.

각 하위영역과 총점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Ⅳ-14>와 같다. 진로성숙도 척도의 네 가지 하위영역과 총점 간의 상관은 658이상 .802 이하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네 개의 하위 영역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진로성숙도라는 하나의 구인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다.

<표 Ⅳ-14> 진로성숙도 척도의 하위영역 및 총점 간 상관

	태도	의사결정	지식	행동
의사결정	.417***			
지식	.494***	.447***		
행동	.471***	.304***	.491***	
총점	.802***	.758***	.797***	.6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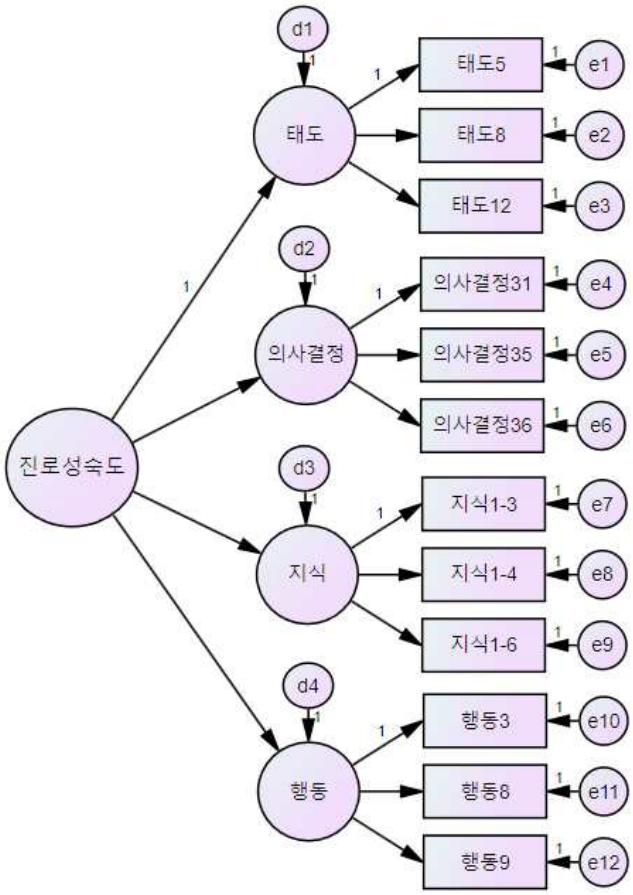
***p< .001

진로성숙도 척도의 문항들이 측정하고자 의도했던 하위요인들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척도를 바탕으로 하여 이론적 뒷받침이 충분하다. 따라서, 요인 회전 방식은 요인 간에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으로 하고,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 하는 Target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변인과 사각요인축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구조행렬을 기초로 하였다(백순근, 2012). 요인 추출 방식은 전집으로부터 관찰된 상관행렬을 표집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최대가능도 요인분석법(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Ⅳ-15>와 같다.

<표 Ⅳ-15> 진로성숙도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지식	태도	의사결정	행동
지식1-6	.954	.412	.371	.359
지식1-4	.656	.365	.407	.332
지식1-3	.514	.513	.370	.368
태도12	.382	.836	.379	.387
태도8	.366	.683	.334	.334
태도5	.250	.434	.306	.109
의사결정36	.325	.378	.804	.093
의사결정35	.346	.325	.752	.117
의사결정31	.390	.443	.581	.244
행동9	.476	.572	.359	.756
행동3	.311	.411	.174	.729
행동8	.284	.151	.063	.691

각 측정변인들의 정상분포(Normal distribution) 검정을 위해 기술통계 결과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한 결과, 하위요인들에서 왜도는 -.627이상 .246이하를, 첨도는 -1.136이상 1.202이하를 나타내어 정상분포 조건인 왜도 절대치≤2와 첨도 절대치≤4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진로성숙도가 네 개의 하위 영역으로 이루어지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림 Ⅳ-3]과 같은 위계적 모형(hierarchical model)을 구성하였다.



[그림 Ⅳ-3] 진로성숙도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Ⅳ-16> 진로성숙도 척도의 적합도

진로성숙도	χ^2(df)	TLI	CFI	RMSEA
전체	97.464(50)***	0.872	0.918	0.073

***p< .001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값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이 변인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χ^2검증에서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χ^2값이 커지므로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χ^2값을 자유도(df)로 나눈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값이 3보다 작으면 모형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Kline 1998). 위 모형의 경우 표준 카이제곱의 값이 약 1.95로 제시되어 모형의 적합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어 χ^2와 달리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은 다른 적합도 지수인 CFI, TLI, RMSE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의 CFI 값과 TLI값은 각각 .918, .872로 두 가지 모두 약 .90의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고 해석하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간명성 조정 지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와 .08 사이의 값은 적절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과 .10 사이의 값은 보통 수준(mediocre fit)으로, .10보다 큰 값은 나쁜 수준(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 연구에서의 RMSEA값은 .073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위계적 요인 모형의 계수 추정치는 <표 Ⅳ-17>에서 정리한 바와 같다. 1차 요인들과 각 문항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준화 계수 추정치 범위는 .431이상 .899이하로,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 추정치 범위는 .607이상 .818이하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Ⅳ-17> 진로성숙도 척도 모형의 계수 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1차 요인 부하량	태도 → 태도5	1.000	.431
	태도 → 태도8	1.633***	.713
	태도 → 태도12	2.016***	.809
	의사결정 → 의사결정31	1.000	.617
	의사결정 → 의사결정35	1.225***	.734
	의사결정 → 의사결정 36	1.281***	.785
	지식 → 지식1-3	1.000	.613
	지식 → 지식1-4	1.078***	.710
	지식 → 지식1-6	1.080***	.794
	행동 → 행동3	1.000	.616
	행동 → 행동8	.731***	.451
	행동 → 행동9	1.367***	.899
2차 요인 부하량	태도 → 진로성숙도	1.000	.818
	의사결정 → 진로성숙도	0.984***	.607
	지식 → 진로성숙도	1.231***	.787
	행동 → 진로성숙도	0.793***	.807

***p< .001

3. 연구 절차

이 연구에서는 [그림 Ⅳ-4]의 연구 절차와 같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에 알맞게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문항을 개발하여 각각의 변인으로 사용하고,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수정 및 보완하여 진로성숙도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검사 실시 후,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여 이에 근거한 논문을 구성하였다.

구분	연구 절차
[1단계] 국내외 문헌 연구 및 사전면담 2016. 12 - 2017. 7	1.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2. 태도, 만족도 진로성숙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3. 사전면담 및 검사문항 개발
▼	
[2단계] 척도 제작 및 검사 실시 2017. 9 - 2017. 11	4.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제작, 진로성숙도 척도 사용 5. 사전 및 사후검사(244명) 실시
▼	
[3단계] 자료 분석·해석 및 논문 작성 2017. 11 - 2018. 1	6. 자료 분석과 해석 7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논문 작성 8. 논문 수정 및 보완

[그림 Ⅳ-4] 연구 절차

4. 자료 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가설의 검증을 위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통계프로그램인 SPSS 22.0과 AMOS(Analysis of Moment Structure)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진로성숙도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한 집단을 반복측정(repeated measure)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의 수와 무관하게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를 진행하였다(백순근, 2012)

둘째, 연구를 위해 제작한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산출하여 확인하고, 구인타당도를 구하기 위해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셋째,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0)'를 수정 및 보완한 진로성숙도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를 통해 구인타당도가 정돈된 문항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coefficient Alpha)를 산출하여 확인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FA)를 통하여 구인타당도를 구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EFA)에서요인 회전 방식은 요인 간에 상관을 허용하는 사각회전(oblique rotation)으로 하고, 요인의 수를 4개로 지정 하는 Target Rotat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결과의 해석은 변인과 사각요인축의 상관을 나타내는 요인구조행렬을 기초로 하였다(백순근, 2012). 요인 추출 방식은 전집으로부터 관찰된 상관행렬을 표집할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최대가능도 요인분석법(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넷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그리고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에 포함된 변인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변인들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분석과 단순상관분석(Pearson의 적률상관계

수)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인들의 구조적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고자 기존에 설계된 가설적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통계적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으로 분석하고 적합도와 비표준화계수 및 표준화계수를 확인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단위부하량 제약(unit loading identification)에 따라 특정 관측변인에 대한 경로계수를 1로 고정시켰으며, 표준 카이제곱(normed chi-square), CFI, TLI, RMSEA와 같은 적합도 지수를 통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연구의 요약 및 제언을 작성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 추후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Ⅴ.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경험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진로성숙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자유학기 진로탐색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척도는 문항별 점수의 합인 총점을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 먼저 각 과목별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제시하고,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그리고 진로성숙도간의 상관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 변화를 분석하여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검증을 실시하였다.

1. 기초통계

가.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

각 변인들에 대하여 최종 분석 대상이 된 학생 178명의 응답이 나타내는 전반적인 추이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 총점의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Ⅴ-1>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N=178)

하위요인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탐색 활동 태도	가치	10	20	15.79	2.56	.187	-.799
	호감	8	20	14.74	2.77	.098	-.630
	기대	8	20	15.06	2.62	-.048	-.456
	준비	8	20	13.72	2.85	.178	-.399
진로탐색 활동 만족도	내용	4	20	15.33	3.12	-.757	1.102
	방법 및 절차	4	20	14.49	3.16	-.512	.670
	환경 및 분위기	4	20	15.16	3.05	-.397	.474
	결과	4	20	14.61	3.62	-.577	.215
진로성숙도(활동 전)		19.12	45	32.56	5.31	.263	-.573
진로성숙도(활동 후)		15	44	33.61	5.32	-.130	-.073

학생들의 진로탐색활동 태도 요인 중 ‘가치’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차례로 ‘기대’, ‘호감’, ‘준비’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에는 ‘내용’요인이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고 차례로 ‘환경 및 분위기’, ‘결과’, ‘방법 및 절차’ 순으로 높은 평균을 보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자기 주도적으로 준비하는 면은 부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왜도 절대치≤2, 첨도 절대치≤4의 범위에 속하여 정상분포의 조건을 충족하였다.

나. 상관분석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이란 두 변인 간의 직선적인 관련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상관 계수란 일반적으로 피어슨(Karl Pearson, 1857~1936)의 적률상관계수(product-moment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야기하며, 인과관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상관계수의 값은 -1부터 1까지의 범위를 지니며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에 따라 정적 상관계수 혹은 부적 상관계수라 부른다(백순근, 2012).

가)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중학생 관점에서 측정한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상관이 없었다.

<표 Ⅴ-2>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상관관계

	전체	가치	호감	기대	준비
전체	-.080	-.047	-.110	-.048	-.061
내용	-.079	-.055	-.079	-.050	-.081
방법 및 절차	-.001	-.004	-.031	.014	.010
환경 및 분위기	-.035	-.006	-.067	-.017	-.027
결과	-.127	-.085	-.161*	-.091	-.088

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고(r= .570, p< .001), 모든 하위영역의 관계 역시 .204- .570의 유의한 정적상관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성숙도에 만족한 정도는 진로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지식, 행동이 성숙한 정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Ⅴ-3>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전체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
전체	.570***	.492***	.305***	.494***	.503***
태도	.521***	.416***	.256***	.438***	.520***
의사결정	.373***	.305***	.204**	.373***	.297***
지식	.409***	.397***	.210**	.347***	.336***
행동	.450***	.398***	.291***	.335***	.390***

**p<.05; ***p< .001

다)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상관관계

	전체	가치	호감	기대	준비
전체	-.047	-.050	-.098	.002	-.011
태도	-.085	-.067	-.101	-.065	-.053
의사결정	.048	.061	-.007	.098	.016
지식	-.044	-.084	-.090	-.005	.026
행동	-.091	-.065	-.158*	-.054	-.029

<표 Ⅴ-5> 측정변인간의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진로 탐색 활동 태도	1	1										
	2	.638***										
	3	.688***	.785***									
	4	449***	.542***	.561***	1							
진로 탐색 활동 만족도	5	-.055	-.079	-.050	-.081	1						
	6	-.004	-.031	.014	.010	.358***						
	7	-.006	-.067	-.017	-.027	.631***	.412***					
	8	-.085	-.161*	-.091	-.088	.601***	.274***	.702***	1			
진로 성숙도	9	-.067	-.101	-.065	-.053	.416***	.256***	.438***	.520***	1		
	10	.061	-.007	.098	.016	.305***	.204**	.373***	.297***	.417***	1	
	11	-.084	-.090	-.005	.026	.397***	.210**	.347***	.336***	.494***	.447***	1
	12	-.065	-.158*	-.054	-.029	.398***	.291***	.335***	.390***	.471***	.304***	.491***

*p< .05; **p< .01; ***p< .001

2. 진로성숙도의 진로탐색활동 전 후 점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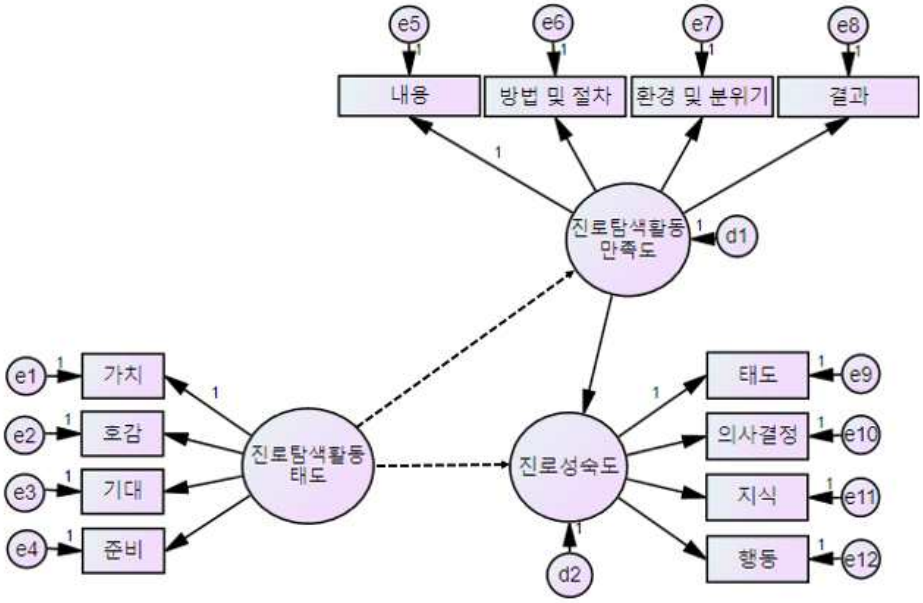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시간차를 두고 진로탐색활동의 전과 후에 진로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질문지를 활용한 사전-사후 검사를 진행하고, 한 집단을 반복측정(repeated measure)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의 수와 무관하게 집단 간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종속표집 t-검증(paired t-test)를 진행하였다(백순근, 2012). 진로성숙도의 사전 검사는 2017년 9월 초순에, 사후검사는 2017년 10월 하순에 측정하였고, 각 점수의 총점을 45점으로 하였을 때, 사전 검사의 점수는 32.56점, 사후 검사의 점수는 33.61점이었으며, 두 점수의 크기를 비교하였더니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Ⅴ-6> 진로성숙도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 차이

	전	후	평균차	표준편차	t	p-value
진로성숙도	32.56	33.61	1.05	7.64	1.823	.07

3.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앞서 살펴본 상관분석의 결과,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Ⅴ-1]와 같이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AMOS 20.0을 이용하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에서 변인 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난 경우, 검은 실선으로 표시하고, 유의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 검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그림 Ⅴ-1] 구조방정식 모형

모형의 적합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Ⅴ-7>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	χ^2(df)	TLI	CFI	RMSEA
전체	51.593(51)	0.999	0.999	0.008

위 모형은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모든 척도는 각 하위 영역별 총점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보면, χ^2값이 51.593, 자유도(df)값이 51이므로 표준 카이제곱의 값이 3보다 작은 수인 약 1.012로 나타나고, 유의수준이 0.05보다 큰 .450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모형이 변인 간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영가설을 채택하였다.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는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적합도 지수 유형인 증분적합도 지수로,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기저모형에 비해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CFI와 TLI 값이 .90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하다고 해석한다. 이 연구에서의 CFI와 TLI 값은 각각 .999, .999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 설명력이 유사한 모형 중에서 더 간명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한 간명성 조정 지수로, 일반적으로 .05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적합도를 매우 좋은 수준(close fit)으로, .05와 .08 사이의 값은 적절한 수준(reasonable fit)으로, .08과 .10 사이의 값은 보통 수준(mediocre fit)으로, .10보다 큰 값은 나쁜 수준(unacceptable fit)로 판단한다(Browne & Cudeck, 1993). 이 연구에서의 RMSEA값은 .008로 매우 좋은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모형에 대한 모수 추정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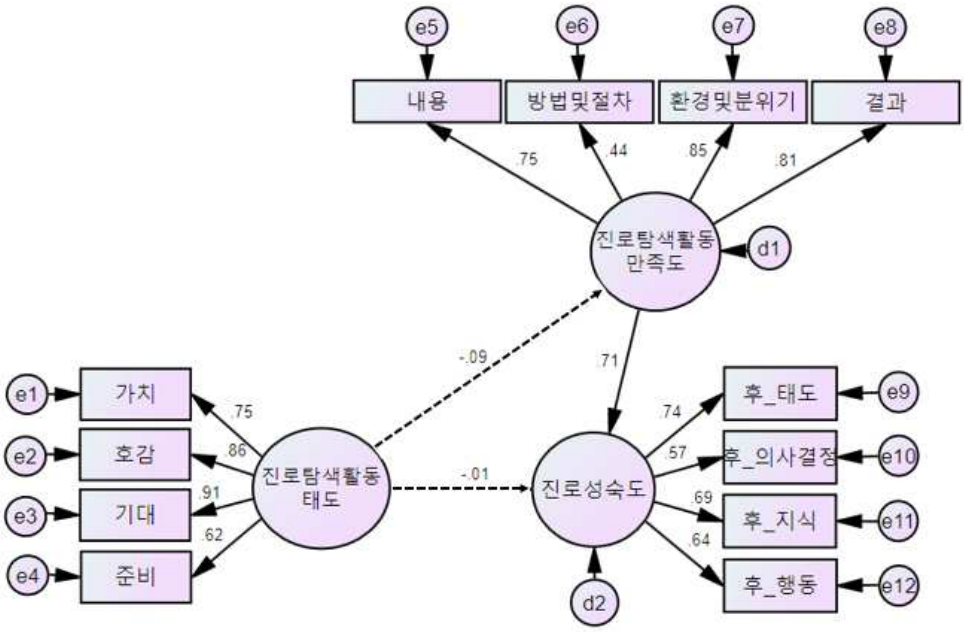
<표Ⅴ-8> 구조방정식 모형의 계수추정치

	모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구조계수	진로탐색활동 태도 →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110	-.090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 진로성숙도	.477***	.712
	진로탐색활동 태도 → 진로성숙도	-.009	-.011
요인 부하량	진로탐색활동 태도 → 가치	1.000	.747
	진로탐색활동 태도 → 호감	1.247***	.861
	진로탐색활동 태도 → 기대	1.252***	.913
	진로탐색활동 태도 → 준비	.920***	.617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 내용	1.000	.752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 방법 및 절차	.595***	.441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 환경 및 분위기	1.105***	.848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 결과	1.253***	.811
	진로성숙도 → 태도	1.000	.744
	진로성숙도 → 의사결정	.736***	.570
	진로성숙도 → 지식	.778***	.690
	진로성숙도 → 행동	.422***	.640

***p< .001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표준화계수 추정치는 .712로 나타났으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서 추정된 표준화계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Ⅴ-2]과 같다. 모형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를 나타내며, 점선으로 표시된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나타낸다.



[그림 Ⅴ-2] 최종모형

Ⅵ. 요약 및 논의

1. 요약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1.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의 진로성숙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
가설 2.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3.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4.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 5.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먼저 선행 연구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의 하위요인을 '가치', '호감', '기대', '준비'로 정하여 각각의 하위요인에서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초청강연', '진로정보탐색'을 묻도록 하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16문항으로 구성하고,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의 하위영역을 '내용', '방법 및 절차', '환경 및 분위기', '결과'로 정하여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와 마찬가지로 '진로탐방', '진로체험', '진로초청강연', '진로정보탐색'을 묻도록 하는 5점 리커르트 척도로 이루어진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성숙도 척도는 진로

에 대한 ‘태도’, ‘의사결정’, ‘지식’, ‘행동’을 측정하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임언, 서유정, 최수정, 김인형(2012)이 개정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에 수록된 문항 중 2-5점 척도로 응답하기 위한 문항들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이 연구의 데이터 수집을 위해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태도 척도와 중학생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척도,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임언 외, 2012)’를 사용한 측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항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를 활용하고, 구인타당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 및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한 적합도 검정을 실시하여 요인의 부하량을 확인하였더니, 문항의 신뢰도 및 적합도가 모두 양호하게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에 측정한 진로성숙도 총점의 만점을 45로 하였을 때, 진로성숙도(사전)는 32.56, 진로성숙도(사후)는 33.61이었고, 총점의 증가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생각과 달랐다.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에서는 다른 교육활동과는 다르게 중학생의 태도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해당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진로 개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었으나,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학생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셋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준화계수 .7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이를 통해 진로탐색활동에 만족한 학생이 진로성숙도도 높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탐색활동에 대한 학생 개인의 태도는 진로에 대한 학생 개인의 역량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는 학교의 진로교육활동에 대한 태도가 좋은 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역량이 높다는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였다.

다섯째,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 연구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당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은 학생들의 진로성숙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였고,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후에 더 많은 중학교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의 성과나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더 나아가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진로탐색활동과 다른 교육활동과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2. 논의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 태도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를 매개로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진로탐색활동에 갖는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을 통해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중학생들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태도'를 정의하고 측

정하였던 선행연구들(박경숙, 이혜선, 1976; 김재철,2004; 상경아, 백순근, 2005; 김정현, 박현옥, 2014; 박숙현, 2015; 김거현, 유인환, 2017; Smith. 1947; Rosenberg, Hovland, 1960; Darkenwald, Hayes, 1990; Gressard, Loyd, 1986)을 보완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맥락에 맞게 학생의 태도 변인을 재구성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고, 진로탐색활동 태도는 진로성숙도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맥락에서 태도와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권혜경, 이희경, 2004; 강명희 외, 2014), 태도와 진로성숙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권혜경, 이희경, 2004; 김신영, 최운실, 2014)와 상반된 결과였으며, 최영문(2016)과 이춘화(2004)의 연구에서 기대수준과 만족의 수준은 항상 일치할 수 없다는 연구를 보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진로탐색활동 만족도는 진로성숙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권혜경, 이희경, 2004; 주영주 외, 2013, 배상훈 외, 2014; 윤지윤, 2015; 김소라, 황영준, 2016)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진로탐색활동 만족도가 진로성숙도의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를 보충하였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넷째, 진로탐색활동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을 통해, 기존의 연구들에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던 하위요인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한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섯째, 이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대상인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학기제에서 경험한 진로탐색활동의 성과변인으로 선정한 진로성숙도의 측정을 위해 임언 외(2012)가 개정한 중·고등학생용 진로성숙도 검사를 수정 및 보완하여 문항의 수가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 시점에 두 가지 이상의 검사에 참여하게 된 참여자가 검사지 문항에 성실히 응답할 동기가 부족하거나 많은 분량의 검사 문항이 참여자의 집중력을 방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검사지의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고 이를 연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그 점을 실천하였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여섯째, 진로탐색활동 후에 진로성숙도의 전체적인 크기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로성숙도가 진로교육의 성과 변인이라는 선행연구(김봉환, 허은영, 2006; 박미란, 이지연, 2010; 어윤경, 2011; 임현정, 김난옥, 2011; 김경식, 이현철, 2012; 김기헌 외, 2014; 배상훈 외, 2014; 빈윤경 외, 2015; 윤지윤, 2015; 김소라, 황영준, 2016; 김해인 외, 2016; 박효정, 한미영, 2016; 신은경 외, 2016)를 지지하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였다는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일곱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탐색활동 전과 후에 각각 측정한 진로성숙도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유가 진로탐색활동 교육 프로그램 뿐이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를 통해 개인의 진로성숙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새로운 요인의 탐색과 그 영향을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의 표집 크기가 각각 178명으로, 각각 두 차례의 검사를 통해 개인의 성별, 반, 번호 문항에 성실히 응답하고, 모든 검사 문항에 성실히 응답한 연구대상의 표집 수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충분한 표집 수를 확보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섭외 과정에서 중학교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 구성의 실질적인 양과 질에 학교 간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특성상 중요하게 작용하는 학교의 지리적 조건, 재정적 조건, 설립유형 등과 같은 배경 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존 교육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이러한 배경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교육 재정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의 진로탐색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다양한 경험을 통해 중학생의 진로를 탐색하여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능력을 기르는 목적의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이 해당학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각 학교의 지리적 조건, 재정적 조건, 설립유형 등과 같은 배경 요인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탐색활동의 성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교의 특성 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넷째, 이 연구의 주요 변인인 진로탐색활동 태도,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진로성숙도는 연구 대상 및 진로탐색활동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구를 위한 검사의 시행 조건을 달리 하여 이들 변인의 관계를 살펴볼 후속 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진로성숙도의 배경변인을 탐색한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세 시점 이상에서 진로성숙도를 살펴보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활용한 종단연구를 수행한다면, 진로성숙도의 변화 궤적(slope)을 통해 진로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학생의 배경변인이 진로성숙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교육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 문헌

강명희, 유영란, 유지원(20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나타난 고등학생의 지각된 교사태도, 학습태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교육과학연구, 45**(1), 181-203.

강원덕, 안귀여루(2010). 성취동기, 내재적 직업가치, 진로장벽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1), 161-175.

교육과학기술부(2008). 교과에 통합된 진로교육_중학생 운영모델.

_____(2010). 진로교육종합계획안.

교육부(2013a). 교육부 고시 제2013-7호.

_____(2013b).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학년을 위한 전환기 진로지도 프로그램(STP-M)운영 매뉴얼.

_____(2015a). 보도자료.

_____(2015b).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

_____(2016a). 2016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발표.

_____(2016b) 진로교육정책설명자료.

_____(2016c).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_____(2016d). 자유학기 진로탐색 활동 길라잡이.

_____(2016e). 2016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및 운영지침.

_____(2016f). 2016. 8. 4(목) 석간 보도자료.

_____(2017a). 2017 학교진로교육 추진계획(안).

_____(2017b). 2017 진로교육 활성화 계획(요약).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2015년 6월 22일 제정 진로교육법.

권혜경, 이희경(2004). 낙관성이 진로태도성숙 및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16**(4),723-741.

김거현, 유인환(2017). 앱 인벤터 활용 SW교육이 초등학생의 컴퓨팅 사고력과 컴퓨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1(4), 371-380.
김경식, 이현철(2012). 한국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에 대한 학교진로교육의 효과-한국교육고용패널(KEEP)과 한국청소년패널(KYPS) 분석을 중심으로-. **중등교육연구, 60**(4), 1079-1103.
김기헌, 유홍준, 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김나라, 최지원(2014).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자유학기제 운영 방향과 과제. **진로교육연구, 27**(3), 199-223.
김미림(2010). 문항진술방식이 척도의 측정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 긍정형과 부정형태도 척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미숙(2007). 수요자 집단 및 성과지표별 영재교육 만족도 분석. **영재와 영재교육, 6**(2), 165-188.
김미연, 김정해(2013). 중학생의 동아리학급활동이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아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K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52**(1), 139-157.
김봉환, 허은영(2006). 직업카드를 활용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2), 433-445.
김봉환, 이제경 유현실, 황매향, 공윤정(2010). **진로상담이론**. 서울:학지사.
김소라, 황영준(2016). 고등학생 진로체험과 프로그램 평가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9**(2), 167-190.
김신영, 최운실(2014). 진로체험학습에서 학생,교사의 주도성이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교육연구, 27**(4), 71-93.
김양분, 류한구, 남궁지영, 김일혁, 전민정(2007). 학생용 및 학부모용 학교 교육만족도 조사 도구 개발. **교육평가연구, 20**(3), 1-27.
김영우, 김종두(2016).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교 진로교육의 효과와 문제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313-31.
김정현, 박현옥(2010). 시각장애학생의 학습 유형과 과학적 태도의 관계.

시각장애연구, 26(4), 167-183.
김종환(2007). 체육교사의 교수행동유형과 학생의 체육수업만족도 및 체육교과태도와의 관계.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3), 41-54
김재철(2004). 가정환경, 학습태도, 수학성적 및 수학에 대한 태도 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8**(3), 1-22.
김재철, 황매향, 김아영(2011). 체험활동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관과 내적 직업가치관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4**(1), 1-23.
김해인, 최인지, 신형진(2016). 자유학기제가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대구지역 중학교의 비교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2), 45-64.
남수정(2011). "고교생의 진로교육의 현황 및 진로역량과 관계 연구". **청소년학연구 18**(11), 283-304.
박경인(2010). 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관계가 학업성취도 및 학교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경숙·이혜선(1976). **학업에 대한 자아개념·태도·학습습관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박미란, 이지연(2010). 진로성숙에 미치는 개인적 변인과 학교교육의 효과 검증. **인간이해, 31**(1), 65-88.
박숙현(2015). 여중생이 지각한 수학교사의 실천적 교수역량이 교육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수학학습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현정(2005). **다변량 통계방법의 이해.** 서울:학연사.
박효정, 한미영(2016). 자율형 사립고, 외고 · 국제고 사회통합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분석: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업효능감, 자아존중감 · 및 진로성숙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교육, 43**(2), 67-98.
변호승 ,서정희 외(2006).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측정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보고서 CR 2008-13**.
배상훈 외(2014). 중학교 단계 진로지도가 고교 진학 후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2**(2), 119-143.

백순근(2012).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교육연구 및 통계분석**. 서울:교육과학사.

백순근, 박경인(2010). 여고생이 지각한 교사-학생 관계와 교과 성적 및 학교교육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교육평가연구, 23**(2).

빈윤경, 윤채영, 김정섭(2015).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진로교육프로그램이 여중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여성학연구, 25**(2), 41-70.

상경아, 백순근(2005). 고등학생의 수학 과외가 학업성취도, 태도,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18**(3), 39-57.

서원석 외(2015). 중·고등학생의 이공계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기술교육학회, 15**(2), 92-112.

신은경 외(2016). 연구논문(硏究論文) : 동아리활동에 따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산업학회, 41**(1), 133-154.

신임선, 장윤옥(2012). 커리어포트폴리오형 및 교사주도형 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4**(1), 85-104.

신희경, 김우영(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결정 동기에 관한 연구: 개인, 가정, 학교의 역할.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4.

오석영(2012). 중학생의 관계형성 및 자기효능감이 진로경험 및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진로교육연구, 25**(3), 77-94.

어윤경(2008). 진로교육 만족도에 따른 진로성숙 수준 변화에 대한 다층분석. **진로교육연구, 21**(4), 23-41.

_____(2011). 청소년기 진로상담 만족도, 대학 전공만족도 및 진로성숙도간의 관계분석:대학 전공선택 요인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2**(5), 1793-1811.

오정숙(2014).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직무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연구, 27**(2), 41-64.

오헌석, 배진현, 이상은, 장현진(2010).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비교 연구. **직업교육연구, 29**(2), 245-265.

유정이, 홍지영, 김진희(2015).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지각한 역할 수행의 어려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2), 1-30.

윤지윤(2015). 고등학생의 진로교육만족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경미 외(2006). 진로 상담 : 직업적 성격유형을 적용한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개념과 진로의식성숙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7**(1), 63-83.

이경희, 이안수(2011). 중등 예비 체육교사들의 교육실습 만족도에 대한 분석. **교과교육학연구, 15**(1), 109-122.

이기정, 강충열(2017). 청소년의 진로교육 만족도 요인 간 구조적 관계: 성별, 진로결정수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활용 = 성별, 진로결정수준 다중집단 구조방정식 활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6), 61-82.

이숙희, 정영란(2014). 과학교과 통합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과 진로 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생물교육 42**(3), 265-278.

이용숙(2016). 자유학기제 진로탐색 활동에 대한 청소년 인식과 만족도 관한 연구 : 자유학기제 중학교 1학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차숙, 최웅용(2011). 고등학생의 정의적 특성이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10**(2), 169-188.

이춘화(2004). 대안학교 교육만족도 분석. **교육연구, 18**, 133-162.

이현미, 정제영(2017).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4**(2), 117-139.

임언, 정윤경, 상경아(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_____(2001). 중·고등학생을 위한 진로성숙도 검사 실시요강.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서유정, 최수정, 김인형(2012). 진로심리검사 개정 및 활용프로그램 개발: 2012년도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현정, 김난옥(2011). 학교활동 경험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3), 261-281.
장현진(2015). 진로교육의 현황과 과제. **The HRD REVIEW,** 21-67.
정양덕, 윤영임, 이강택(2015).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 연구-전라북도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21**(1), 32-56.
정윤경, 이상은(2005). 우리나라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와 관련 변인: 개인, 가정, 학교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259-305.
정윤경, 박천수, 진미석(2016). 국가진로교육센터 운영체계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윤경(2016). 중등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역할과 과제. **한국진로교육학회, 11**, 61-82.
정재삼, 임규연(2000).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및 만족도 관련 요인의 효과 분석.**교육공학연구, 16**(2), 107-135.
정현주, 정은주, 김경숙(2013). 중학생 예술동아리 자치활동 수혜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및 인성변화 자각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4), 397-416.
정혜진, 김원경(2015). 수학교과 통합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 **수학교육 54**(2), 167-194.
정철영, 정진철, 이종범, 정동열, 임효신, 이서정, 임정훈(2015). 우리나라 진로교육 현황 및 발전 방향 연구. **진로교육연구, 28**(3), 155-171.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2013). 진로교사의 지원, 진로교육 만족도,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과 중학생의 진로성숙도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진로교육연구, 26**(4), 25-47.

최윤정, 김지은(2012).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3**(2), 81-106.

한수정(2013). 간호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전공만족도가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간호학회지 25**(5), 559-566.

함승연(2012). 중학생의 진로성숙도와 성취 목표, 학습 태도 및 학업성취도 실증적 고찰.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24**(5), 616-626.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Bennett & Lockyer (1999) The Impact of Digital Technologies on Teaching and Learning in K-12 Education. Report prepared for the Curriculum Corporation.
(available URL: http://socci.edna.edu.au/content/pdf/lit_res.pdf)

Crites. J. O. (1978).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Monterey, CA:CTB/McGraw-Hill.

Darkenwald, G. G., & Hayes, E.(1988). Assessment of adult attitudes toward continuing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7***, 197-204.

Dillon, W. R., Kumar, A., Mulani, N.(1987). Offending estimates in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mments on the causes of and solutions to Heywood cases. ***Psychological Bulletin***, ***101***(1), 126-135.

Fazio, H. R., Olson, A. M. (2003). Attitude: Foundations, Functions, and Consequences(edited by Hogg, A. M & Cooper, J), ***The Sag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London:Sage.

Gressard. P. C, Loyd. H. B. (1986). Validation Studies of a New Computer Attitude Scale. ***AEDS Journals, 19***(4). 295-301.

Hayes E. R., Darkenwald G. G. (1990) 'Attitudes toward adult education: An empirically based conceptualization', *Adult Education Quarterly*, 40(3), 158 - 168.

Heywood, H. B.(1931). On finite sequences of real numbers.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Containing Papers of a Mathematical and Physical Character,* 134(824), 486-501.

JIN, Misug. (2010). The future of world of work and creative career development. 2010.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Education Research Association.* Seoul:Korea.

Jung, Ae-Kyung. (2017). Career education in a changing society: meeting new demands for career education, *NYPI & ARACD INTERNTIONAL CONFERENCE*, 507-521.

Lee, Ji-Yeon. (2017). Country report for career eduation in Korea. *NYPI&ARACD INTERNATNIONAL CONFERENCE*, 5-32.

Leong. T. L. F, Kim. H. W. Helen. (1991). Going Beyond Cultural Sensitivity on the Road to Multiculturalism: Using the Intercultural Sensitizer as a Counselor Training Too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0*(1), 112-118.

OECD(2004). *Career Guidance and Public Policy; BRIDGING THE GAP.*

_____(2015). *PISA 2015 Results.*

Prideaux. L .A, Creed. A. P.(2001).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ndecision :A review of the accrued evidence*. Griffith University-Gold Coast.

Rosenberg, M. J., & Hovland, C. I. (1960).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al Components of Attitudes.Attitude Organization*

and Change: An Analysis of Consistency among Attitude Components, Yale University Press:New Haven.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49-205.

Stanislav Kolenikov, Kenneth A. Bollen.(2010). *Testing Negative Error Variances: Is a Heywood Case a Sympton of Misspecification?*

Super, D. E. (1955). Transition: from vocational guidance to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3-9.

Super, D.(1965).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American Development, 8*, 185-90.

Super, D. E., Thompson, A. S., Lindeman, R. H., Jordaan, J. P., & Myers, R. A. (1979). *Career Development Inventory: School for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Usher. L. E, Pajares. F. (2009). Sources of self-efficacy in mathematics: A validation study.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4*, 89-101.

교육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 www.ggoomggi.go.k

덴마크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uvm.dk

아일랜드 NCGE 홈페이지: http://www.ncge.ie

University of Derby International Centre for Guidance Studies(iCeGS) 홈페이지: http://www.derby.ac.uk/research.ices

NCDA 홈페이지: http://www.ncda.org/aws/NCDA/pt/sp/home_page

부 록(설문지)

● 사전검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 이 설문지는 약 20분 소요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평가전공 신은주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쓰거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 별 : ① 여 ② 남
2. 반, 출석번호 : _____반 _____번

◎ 다음은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태도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의사결정	나는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식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 조건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의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예	아니오
1	행동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 (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①	②
2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	①	②
3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 또는 취업)를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①	②

◎ 다음은 진로탐색활동 태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번호	하위항목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가치	진로탐방은 다양한 진로에 대해 배우고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직업체험은 내가 선택한 진로를 체험해 보고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진로초청강연은 내 진로를 위한 정보를 얻어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진로정보탐색은 내 진로를 위한 정보를 얻어 스스로 내 진로를 찾기 위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호감	나는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하여 진로와 관련한 설명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가 관심 있는 진로와 관련된 장소를 방문하여 체험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진로 전문가에게 진로와 관련된 강연을 듣고 진로를 계획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진로에 대한 자료를 읽고 다양한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하위항목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기대	나는 진로탐방에 열심히 참여하여 많은 진로를 탐색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업체험을 통해 원하는 직업에 대해 열심히 배우고 체험해보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진로초청강연에서 진로전문가에게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질문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진로정보탐색에 열심히 임하여 진로정보를 진로 계획에 잘 활용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3	준비	나는 진로탐방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가고 싶은 진로탐방 장소를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직업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내가 체험하고 싶은 직업을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진로초청강연에 대해 알아보고 듣고 싶은 진로강연을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진로정보탐색에 대해 알아보고 얻고 싶은 진로정보를 생각해 보았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자료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사후검사

안녕하세요?

이 설문지는 중학생의 진로탐색활동의 태도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한 내용은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응답 자료는 연구 상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문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밝고 희망찬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 이 설문지는 약 20분 소요됩니다.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육측정평가전공 신은주 드림

◎ 다음 문항에 직접 쓰거나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1. 성　　별　:　① 여　　② 남
2. 반, 출석번호　:　_____반_____번

◎ 다음은 진로성숙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태도	나는 내가 잘하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안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 희망을 이루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의사결정	나는 관심 있는 학교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능력과 가정환경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먼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식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을 위한 준비과정과 자격 조건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의 근무환경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직업에서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번호	하위영역	문항내용	예	아니오
1	행동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기관 (학교, 학원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적이 있다.	①	②
2		최근 1년 이내에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 직업인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	①	②
3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진로(진학 또는 취업)를 위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①	②

◎ 다음은 진로탐색활동 만족도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 번호에 √표 해 주세요.

번호	하위항목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용	나는 진로탐방을 통해 배운 내용이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체험을 통해 경험한 내용이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진로초청강연의 내용이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진로정보탐색을 통해 알게 된 정보가 재미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5	방법 및 절차	나는 진로탐방의 1회당 시간이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직업체험의 1회당 시간이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진로초청강연의 1회당 시간이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진로정보탐색의 탐색 도구가 적당하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환경 및 분위기	나는 진로탐방의 장소가 탐방에 집중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직업체험의 장소가 직업을 충분히 체험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진로초청강연의 장소가 강연에 집중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진로정보탐색의 장소가 정보를 탐색하기에 좋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결과	진로탐방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직업체험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5		진로초청강연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16		진로정보탐색은 내가 좋아하거나 잘하는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①	②	③	④	⑤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의 자료로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ABSTRACT

The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nd Its Effects on the Career Maturity Mediated by the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Shin, Eun-Ju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middle school students' attitude towar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on the career maturity mediated by the satisfaction with Career Exploration programs. The below are the research questions being investigated.

1. How does the students' career maturity change after experiencing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2. How does the students' attitude affect the satisfaction with career exploration programs?
3. How does the students' satisfaction affect career maturity after experiencing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4. How does the students' attitude affect career maturity after experiencing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5. How does the students' attitude affect career maturity by the mediating effect of the satisfaction with Career Exploration programs?

To address these questions,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 Attitude Scale an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 Satisfaction Scale had been developed. Also, the 'Career Maturity Test for Secondary Students' developed by Lim et al. (2012) was employed and modified for implementations. The validity(face validity, construct validity) and the reliability(Cronbach's α) of all three scales had been confirme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 Attitude Scale consisted of 16 items with the following constructs:
① value, ② interest, ③ expectation, ④ preparation.

An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 Satisfaction Scale consisted of 16 items with the following constructs:
① content, ② method & procedure, ③ environment & mood, ④ result.

These two scales above were estimating the students' feelings of the following programs on each construct:
① visiting for career, ② experiencing for career,
③ guest lecture for career, ④ searching information for career.

Also, the modified Career Maturity Scale consisted of 12 items with following constructs:
① attitude, ② decision making, ③ knowledge, ④ behavior.

The total of 178 students of G middle school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Career Exploration Attitude Scale and the Career Maturity Scale(pre-test) were given on the early September, 2017, the Career Exploration Satisfaction Scale and the Career Maturity Scale(post-test) were given on the late October, 2017 to the participants.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of career maturit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full score = 45, pre-test = 32.56, post-test = 33.61, t = 1.823, p = .07).*

Second,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didn't affect the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Third,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ffected the career maturity. And the path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showed that the satisfaction was predictive of the career maturity
(*standardized coefficient = .71, p < .001*).

Fourth, the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did not affect the career maturity.

Lastly,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with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did not have a mediating effect on the attitude and the career maturity.

In conclusion, the middle school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positively affected the career maturity. However, the students' career maturity didn't increase by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of the school and the attitude toward the programs didn't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s. This study provided insights in order to analyze data of other schools'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nd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deeply the relations between the Career Exploration programs and other educational programs in further studies.

Keywords : attitude toward Career Exploration programs, satisfaction with Career Exploration programs, career maturity, free-exam semester